



하이닉스 돈잔치 제동 반도체 성과급 재논의

주주단체, 노동장관·대표 고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란이 형사고발로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잇달아 성과급 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주주단체가 고용노동부 장관과 두 회사 대표 이사를 고발하면서 논란이 노사를 넘어 법정 공방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성과급 지급 방식을 놓고 집중교섭에 들어간 SK하이닉스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22일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날 오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작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부장(부회장)과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부장(사장), 박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

이재명 대통령·최태원 회장 등
잇달아 성과급 개선 필요성 언급

주주단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노동법 연계 시도 대응 국가적 문제”

하이닉스, 자사주 성과급 방안에
노조 ‘주가변동 위험 떠안아’ 반대

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에 연동되는 성과급은 노동법상 정당한 대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지난 1월 대법원이 손익 연동 성과급을 임금에 아닌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로 본 판결을 제시했다.

고발 사유는 대상별로 다르다. 김 장관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삼성전자 파업 예고 당시 파업을 막는 대신 노사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경영진은 영업이익의 약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협약을 맺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SK하이닉스 경영진은 파업 압박도 없이 영업이익 10%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 4조7000억원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고발은 이 대통령이 성과급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나.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시행령과 행정해석을 통한 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위법 사안을 덮고 갈 수는 없다”며 “당장

은 삼성전자의 위법 배당 문제이지만 앞으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노동법을 연계하려는 시도에 대응해야 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성과급 논란의 중심에는 SK하이닉스가 있다. 노사는 이날 충북 진천에서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오전, 오후 각각 생산직과 사무직 노조가 사측과 협상했다. 이번 교섭은 지난 3차 본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노조 요청으로 마련됐다.

노사는 지난해 9월 영업이익의 10%를 PS(초과이익분배금) 재원으로 삼고 기본급 100% 상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성과급의 80%는 당해 연도에 현금으로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이연 지급하며 이 기준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측이 3차 교섭에서 성과급의 절반가량을 자사주로 돌리는 방안을 꺼내면서 합의가 1년 만에 흔들리게 됐다. 노조는 주택 잔금이나 대출 상환에 성과급을 쓰려던 직원들이 주가 변동 위험을 떠안는 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사 갈등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발언으로 한층 커졌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간담회에서 “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를 침해한다면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 그 문제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를 사측의 제도 개편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받아들이며 반발했다. 자사주 지급 방식은 삼성전자가 먼저 도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반도체(DS)부문 특별경영 성과급을 신설해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현금으로 지급해 온 기존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보상 체계를 바꾸는 방식이어서 직원 반발이 상대적으로 크다. 사측이 지급 방식 변경에 나선 배경에는 AI 메모리 호황에 따른 실적 급증이 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7조2063억원으로 역대 최대였고 직원들은 올해 초 기본급의 2964%를 성과급으로 받았다. 증권가는 올해 영업이익이 25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본다. 실적이 늘어나는 만큼 성과급 재원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SK하이닉스 내부 관계자는 “미국 공장 건설 등 회사의 투자 필요성에는 직원들도 공감하지만 합의 1년 만에 다시 협상하는 데 대한 피로감이 크다”며 “내부에서도 보상을 놓고 찬반이 갈리는 만큼 지급 비율과 직원 선택권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자 대표이사 노태문 DX부문 사장이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드빌링스게이트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6’ 행사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와 ‘갤럭시 Z 폴드8·갤럭시 Z 플립8’을 공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삼성 ‘첫 폴더블 울트라’… 갤럭시Z 3종 공개

英 런던서 ‘갤럭시 언팩 2026’
폴드8 접으면 5.5형, 펼치면 7.6형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 최초의 ‘울트라’ 모델을 앞세워 갤럭시 Z 시리즈 라인업을 3종으로 확대했다. 한층 얇고 가벼워진 폼팩터와 에이전트형 인공지능(AI), 강화된 카메라·디스플레이 성능을 앞세워 폴더블 시장 주도권을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드 빌링스게이트에서 열린 ‘갤럭시 언

팩 2026’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 플립8 등 폴더블 스마트폰 3종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를 공개했다.

갤럭시 Z 폴드8은 접었을 때 5.5형 커버 화면과 펼쳤을 때 7.6형 메인 화면을 제공한다. 메인 화면은 4대3 비율을 적용해 영상이나 독서, 게임, 웹 서핑 등 콘텐츠 감상 시 화면 활용도를 높였다. 역대 폴드 제품 중 가장 가벼운 201g의 무게와 4800mAh 배터리도 갖췄다.

카메라는 5000만 화소 광각·초광각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다. 전·후면 카메라를 동시

에 촬영하는 ‘듀얼 레코딩’과 선택한 인물을 자동으로 추적해 편집하는 ‘마이 팬캠’ 기능을 통해 촬영과 편집 편의성을 높였다.

폴더블 라인업에 처음 도입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는 8형 대화면과 4.1mm 두께, 215g 무게를 구현했다. 2억 화소 메인 카메라와 폴드 시리즈 최초의 50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8K 영상 촬영과 시네 LUT 기능을 지원해 촬영부터 편집까지 하나의 기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초고가·비거주 1주택 보유세 해법 나올까

李 대통령, 오늘 부동산 대토론회
“부동산 정상화로 양극화 해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 개편 등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연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자산불평등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시장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 보유세 등과 대출 규제와 관련해 참석자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국민 통합과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으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10

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100분간 진행된다. 토론회는 이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와 전문가 발제, 자유토론이 진행되며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만큼 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듣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토론회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부동산토론회.kr’을 통해 정책 관련 국민 제안을 접수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주택공급(규제) 분야 1473건, 주택금융 2069건, 부동산세제 1203건 등 4760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가장 많은 국민들이 접수한 주택금융은 주택담보 대출 정책 완화 제안 등 대출규제와 관련된 의견이 많다. 주로 무주택 실수요자와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담보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대출 한도 축소를 하며 실수요자들이 대출 문턱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또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대한 대출 한도·금리·만기 등 금융 지원이 변경되는 점도 부담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민간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많았다. 용적률 상향과 역세권 고밀 개발 확대, 통합심의 의무화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기되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비거주·초고가 1주택 대상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는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향후 부동산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metro



▲정청래 “전대 후보들, 음모론·폭력·가짜뉴스
않겠다고 공동선언해야” /사진 뉴시스
▲국힘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유기아동 감소
성과…입양 지원 시급”

▲민주당 선호투표제 효력정지 공방…법원 첫 심
문 진행
▲중앙선관위 “국조특위 검증 부분에 포함되면
서버 공개 가능”

▲‘페이커’ 이상형, 경장 됐다…‘청소년 도박 예
방’ 명예경찰 위촉
▲여름방학 초등돌봄·교육 강화한다…97만명 참
여 예정

이재용·최태원·젠슨 황 등 韓美 AI 수장 한자리에 모인다

美 라운드테이블 형식 회동 추진
오픈 AI CEO 샘 올트먼 합류 가능성
기술협력·투자방향 등 논의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미국에서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회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을 이끄는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업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미래 AI 기술 협력 확대와 투자 방향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그룹, 네이버, 엔비디아 경영진은 이번 주 미국 실리콘밸리 인근에서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회동은 오는 24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이해진 의장, 젠슨 황 CEO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의 합류 가능성도



지난 6월 5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고깃집에서 이해진 네이버 의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삼겹살 회동 중 기념 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거론된다.

회동이 성사될 경우 메모리 반도체와 AI 반도체, 생성형 AI 서비스 분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례적인 자리가 될 전망이다.

황 CEO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와 SK그룹, 현대차그룹, LG,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 경영진을 잇달아 만

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다시 한국 기업들과 협력 논의에 나서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만남이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생성형 AI를 아우르는 글로벌 AI 연합 구축과 생태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고 있

으며, 하반기 출시 예정인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루빈’에도 양사의 HBM4가 탑재될 예정이다.

양사는 오픈AI의 자체 AI 칩에도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차세대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플랫폼용 추론 AI 칩 생산과 엔트로픽의 차세대 AI 칩 위탁생산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기가와트(GW)급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에 진출한 만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팩토리는 GPU 서버와 데이터센터, 전력·냉각 설비 등 AI 인프라에 AI 모델과 클라우드 기술을 결합한 대규모 연산 시설이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동맹을 맺고 글로벌 기업 간 거래(B2B) 및 공공 시장(B2G)으로 본격 진출하며 사업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 1면 ‘삼성, 갤럭시Z 3종…’서 계속



갤럭시 Z 폴드 울트라.

/삼성전자

‘워치 울트라 2’ 등 공개 28일부터 사전판매 돌입

성능은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모바일 플랫폼이 담당한다. 5000mAh 배터리와 갤럭시 Z 시리즈 최초의 최대 45W 고속 충전, 듀얼 패스 충전 시스템도 적용됐다.

갤럭시 Z 플립8은 180g의 무게와 펼쳤을 때 6.1mm 두께로 휴대성을 강화했다.

폴드8 울트라와 폴드8에는 티타늄 합금 필름과 강화 티타늄 플레이트를 결합한 ‘플렉스 티타늄’ 기술이 처음 적용됐다. 내부 지지 구조와 힌지, 화면 장력을 개선해 내구성을 높이고 화면 주름은 줄였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최대 3000니트 밝기를 지원한다.

AI 기능도 한층 고도화됐다. 갤럭시 AI와 제미니 AI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보고 있는 화면과 콘텐츠의 맥락을 이해하고 배달·예약·쇼핑 등 40여개 앱을 연동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한다.

삼성전자는 이날 갤럭시 워치 울트라2와 워치9도 공개했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2는 전작보다 35% 늘어난 800mAh 배터리와 최대 5000니트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두께는 10.7mm로 12% 줄였으며 10ATM과 IP69K 방수 등급, 국제 다이빙 장비 안전 규격인 EN13319 인증을 갖췄다.

갤럭시 워치9는 390mAh 배터리와 최대 3000니트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앞세워 수면을 포함한 일상 건강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신제품은 오는 8월 7일부터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순차 출시된다. 국내 사전 판매는 오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된다. 256GB 기준 가격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 257만7300원, 갤럭시 Z 폴드8 227만8100원, 갤럭시 Z 플립8 168만3000원이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2 47mm LTE 모델은 96만9100원, 갤럭시 워치9은 모델에 따라 49만9000원부터 56만9800원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DX부문 사장은 “AI가 진화할수록 모바일 기기는 사용자를 가장 잘 이해하고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접점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갤럭시 Z 시리즈는 삼성전자의 가장 완성도 높은 폴더블 제품으로 모바일 경험을 한 단계 진화시키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차세대 인텔리전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TSMC, 美 투자규모 확대… K-반도체 고객사 확보 ‘적신평’

TSMC, 美 생산거점 확충 속도
파운드리 등 수주경쟁 격화 전망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가 미국 애리조나 투자 규모를 총 2650억달러(약 392조원)로 확대하며 현지 생산 거점 확충에 속도를 낸다. 첨단 패키징 시설까지 포함한 대규모 생산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을 둘러싼 삼성전자의 추격전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TSMC는 미국 애리조나 투자 규모를 기존 1650억달러에서 2650억달러로 확대한다. 추가 투자금 1000억달러는 반도체 생산공장과 첨단 패키징 시설 확충 등에 투입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국 빅테크 고객사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굳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TSMC는 현재 애리조나 1공장에서 4나노 공정을 양산 중이다. 회사 측은 현지 공장의 수율이 대만 주력 공장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2공장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은 장비 반입을 앞두고 있으며 3공장은 건설 중이다. 4공장과 애리조나 지역 첫 첨단 패키징 시설도 착공 준비에 들어갔다. 향후 계획까지 포함하면 애리조나에는 반도체 생산공장과 첨단 패키징 시설 등 총 12개의 생산시설과 연구개발(R&D) 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이에 삼성전자의 북미 파운드리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며 북미 고객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테슬라의 차세대 AI

반도체인 AI5와 AI6를 테일러 공장에서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할 예정인 만큼 해당 공장의 안정적인 양산 여부가 향후 파운드리 경쟁력을 가능할 핵심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AI5는 최근 테이프아웃(시제품 양산)을 마치고 양산 준비에 들어갔으며, AI6 역시 삼성전자가 오는 2033년까지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

업계에서는 테슬라 AI5·AI6의 성공적인 양산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대표 레퍼런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엔비디아와 AMD, 애플, 퀄컴 등 미국 빅테크 고객사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TSMC가 미국 내 생산능력은 물론 첨단 패키징까지 선점할 경우 AI 반도체 고객사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 정부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시설뿐 아니라 첨단 패키징까지 자국 내에서 수행하는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TSM

C의 대규모 투자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와 맞물려 미국 내 생산 비중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투자가 삼성전자에 위기 요인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AI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특정 업체에 생산을 집중하기보다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복수의 파운드리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AI5·AI6 양산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추가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 AI5·AI6를 안정적으로 양산하고 첨단 패키징 경쟁력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가 향후 수주 경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삼성전자, 신용등급 A ‘트리플 크라운’ 기대

S&P, 등급전망 ‘긍정적’ 상향 조정
“최소 2년간 견조한 실적 이어갈 것”

삼성전자가 신용등급 A ‘트리플 크라운’ 달성에 한발 더 다가섰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만 89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한국 기업 최대였던 올 1분기 영업이익(57조2000억원)을 56% 경신했다. 글로벌 테크 기업을 통틀어서도 엔비디아, 애플을 제치고 최대 영업이익 기록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지난 21자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실적 호조를 반영해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S&P는 “긍정적 등급 전망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산

업의 구조적 성장 속에서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HBM 및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향후 최소 2년간 견조한 영업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견해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S&P는 삼성전자의 등급 전망을 상향하면서도, ‘AA-’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과 ‘A-1+’ 단기 발행자 신용등급, 선순위 무담보 채권에 대한 ‘AA-’ 장기 채권 등급은 그대로 유지했다.

S&P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제한적인 공급으로 메모리 업황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은 최소 2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장

기공급계약(LTA) 확대와 맞춤형 메모리 제품 증가도 실적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평가했다.

실적 전망도 대폭 높였다. 삼성전자의 매출은 올해 683조원, 내년 821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상각전영업이익(EBITDA)는 지난해 91조원에서 올해 393조원, 내년 502조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향후 2년간 연 81조~84조원 수준으로 확대되지만 잉여현금흐름도 올해 201조원, 내년 288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HBM과 파운드리 사업 전망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P는 삼성전자가 HBM4에 1c D램과 4나노 베이스다이를 적용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고, HBM3E에서 나타난 수율 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TSMC의 생산

능력 제약이 이어질 경우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삼성전자가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서버용 D램과 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AAA’등급 달성이 가시권이란 평가다.

S&P는 향후 장기공급계약 및 맞춤형 제품 확대를 통한 사이클 변동성 완화가 확인되고, HBM 시장 입지 확대와 견조한 순현금 포지션이 유지될 경우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와 무디스는 삼성전자에 대해 각각 ‘AA-’ (안정적), ‘Aa2(안정적)’ 신용등급 부여하고 있다. /허정운 기자 zekova@



metro

대기업 공세에 밀려난 ‘향토 백화점’… 지역 상권서 잇단 퇴장

대구백화점 매각 기업경영 마침표
초대형 거점 점포로 양극화 심화
대기업 3사, 지방 상권 잠식 가속
명품·자본력 격차에 경쟁력 추락

지역 거점 향토 백화점들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막강한 자금력과 명품 브랜드 유치력을 무기로 내세운 대기업 3사(롯데·신세계·현대) 백화점이 지방 상권을 빠르게 점령하면서, 오랜 기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했던 향토 백화점들은 설 자리를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모양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는 지난 15일 대구백화점 최대주인 구정모 회장 등 7명이 보유한 보통주 약 279만5000주(지분율 25.82%)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세경인베스트는 서울 소재 투자자문·컨설팅 기업이며, 아람코리아는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다.

대구백화점(대백)은 1944년 대구상회로 시작해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랑받은 대구·경북 지역의 향토 백화점이다. 그러나 이번 매도를 통해 창업주 구본홍 명예회장 시절부터 2대째 내려오던 기업 형태의 경영 체제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한때 대백의 위상은 대단했다. 1969년 대구 중구 동성로 본점 개점을 시작으로 국내 첫 정찰제 판매와 신용 판매 제도를 도입했으며, 1993년에는 대백프라자를 열며 지역 유통의 맹주로 군림했다. 1999년에는 지방 백화점 최초로 단일 점포 연 매



대구백화점 본점의 모습. 대구백화점은 한때 단일점포로 전국 매출 7위까지 올랐지만 최근 서울 소재 투자자문·컨설팅 기업과 부동산 개발 기업에 지분이 매각됐다. /뉴시스

출 3000억 원을 돌파해 전국 7위에 올랐고, 2002년에는 매출 6900억 원, 영업이익 88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롯데백화점 대구점을 시작으로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대기업 유통 공룡들이 상권에 잇따라 출점하면서 거센 풍파를 맞이했다. 특히 2016년 동대구역사에 들어선 신세계백화점이 롤렉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등 이른바 ‘명품 빅3’를 싣아하며 거대한 집객력을 과시하자 대백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2016년부터 8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대백은 결국 2021년 개점 52년 만에 동성로 본점의 문을 닫았고, 이번 경영권 매각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향토 백화점의 잔혹사는 대구만의 일이 아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IMF) 파고를 기점으로 대전의 동양백화점, 부산의 태화·미화당·유나백화점, 광주의 화나백화점 등이 연달아 쓰러지며 대

기업 간판으로 바뀌거나 폐업했다. 전성기 시절 대구백화점과 겨룰 정도였던 대전 지역의 향토 백화점이었던 세이백화점 또한 경영 실적 악화 끝에 결국 2022년 매각됐고 2024년 5월 문을 닫았다. 세이백화점은 주거시설로 개발이 한창이다. 서울 동작구의 터줏대감이었던 태평백화점 역

시 대기업의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2021년 30년 역사의 문을 닫았다. 태평백화점은 판매시설·공공청사·오피스텔이 포함된 복합건물로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써 전국 어디에서도 단일 자본으로 운영되는 지역 향토 백화점의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지역 백화점 몰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과의 극심한 자본력 및 브랜드 유치력 격차가 꼽힌다. 오늘날 오프라인 쇼핑 공간은 단순한 상품 구매를 넘어 문화, 휴식,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했다. 그러나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오프라인 매장 리뉴얼과 플랫폼 개발, 이커머스 전환 등은 독자적인 지방 유통기업이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브랜드 점포 총량제를 적용하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거점형 대형 점포에만 입점하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명품 라인업을 갖추지 못한 중소 백화점의 경쟁력은 급격히 추락했다.

실제로 최근 백화점 시장은 매출 1조 클럽’을 달성하는 초대형 거점 점포들과 매출 부진에 허덕이는 중소형 점포 간의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 대기업 3사조차 매출 하위권 점포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중소형 매장은 폐점하거나 아울렛 및 복합몰 형태로 간판을 바꿔 달며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실정이다. 대형 유통 기업들마저 초대형 거점 매장 위주로 전략을 수정하는 상황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던 지역 향토 백화점들의 쇠되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인 셈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백화점 시장이 프리미엄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지방은 이를 뒷받침할 소비 기반이 수도권보다 약하다”며 “향토 백화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전 성심당처럼 전국 단위의 집객력을 갖춘 차별화된 콘텐츠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노란봉투법 혼선 없도록 세부 기준 조속히 정비”

김영훈 노동장관 기자 차담회
성과급·투자계획 쟁의 여부 구체화
시행령·행정지침 보완해 혼선 차단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관련한 세부 기준을 최대한 빨리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부 기준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행정지침 및 시행령 등을 가리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반도체 투자계획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고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 “이게 과연 쟁의 대상인가”라며 “저 같은 경우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

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차 기준은 입법으로 정하지만 그 입법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행정부의 몫”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시행령과 대통령령,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등을 명확하게 정해 놓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노동부는 기존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토대로 사업경영상 결정이나 성과급 배분 등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김 장관은 “법 시행 100일이 지난 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법이 어떻게 안착되고 있는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싶다”며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주장 같은 문제도 있으니 현장 노사에 법 제도에 취지나 이런 것들을 더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 등을 위한 새로운 사회제도에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AI가 사회제도의 근본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제도를 발명해야 한다는 게 김 장관의 견해다. 그는 “기술만 혁신할 것이 아니라 제도도 혁신해야 인간을 위한 AI라는 대명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Fighting!

**생명보험이
100세 시대를 뛰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금융,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세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종신까지 든든한 생명보험이 삶의 여유를 드립니다.
혜택도 보장도 평생 든든한 생명보험이 함께 합니다.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AI서버 필수부품 3종 모두 생산 ‘유일 기업’ 빅테크 공급망 확대

삼성전기가 반세기 넘게 쌓아온 부품 기술력을 앞세워 빅테크 인공지능(AI) 서버 공급망의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다. AI 서버의 필수 부품인 MLCC(적층세라믹콘덴서)와 반도체 패키지 기판, 실리콘 커패시터를 모두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기가 유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폰과 TV에 부품을 대던 주력 시장도 AI 데이터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기는 급증하는 수요에 맞춰 부산에 15조원을 투자하고 베트남 증설도 추진하고 있다.

22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62.7% 성장할 전망이다. 출하량 증가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분석이다. 옴디아는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공급 압박이 메모리를 넘어 MLCC와 인쇄회로기판 등 부품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품들을 모두 생산하는 삼성전기가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이유다.



AI 서버 핵심 부품과 데이터센터 공급망을 형상화한 이미지.

/띠닝 AI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기

② 삼성전기



삼성전기

◆AI 서버용 MLCC 1위…빅테크와 4500억 공급 계약

삼성전기는 AI 서버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 3종을 모두 생산한다. MLCC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반도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부품으로 AI 서버 한 대에 일반 서버의 10배 이상 탑재된다. GPU(그래픽처리장치) 한 개에 2만개 이상, 서버 랙 기준으로는 최대 60만개가 들어간다. FC-BGA(고집적 반도체용 패키지 기판)는 AI 반도체와 메인 기판을 연결하는 부품이며 실리콘 커패시터는 반도체 공정으로 만들어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 수준으로 얇게 구현한 차세대 전력 부품이다.

특히 실리콘 커패시터는 AI 시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전력 안정성을 해결할 부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전력 사용량이 많고 전압 변동이 커 순간적인 오동작 위험이 큰데, 실리콘 커패시터가 전력을 저장했다가 일정하게 공급해 이를 막아 준다.

MLCC가 세라믹을 여러 층으로 쌓는 구조라 두께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 실리콘 커패시터는 반도체 공정으로 얇게 만들 수 있어 반도체 패키지 내부나 기판 뒷면 등 좁은 공간에도 배치할 수 있다.

빅테크 기업과 4500억 규모 MLCC 계약 전체 점유율 25%, AI 서버용 시장서 40%

퀄컴 AIDC 용 FC-BGA 양산… 협력 확장 엔비디아 차세대 AI 반도체용 기판 공급도

부산사업장에 15조 투자, 기판·MLCC 거점 베트남 생산법인에도 1.8조 증설 투자 추진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섬’ 설립 계약

세계 1위 무라타 경쟁 ‘과제’… 가격인상 예정 가격 전략에 영향… 증설 속도도 판도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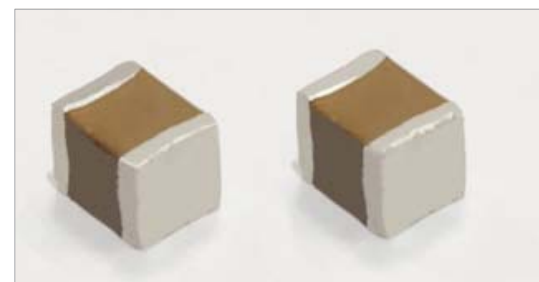
성과는 수주로 확인되고 있다. 삼성전기는 지난 달 30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약 4500억원 규모의 AI 서버용 MLCC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2027년도 1년이다. 회사 측은 대규모 수주 계약이 드문 MLCC 업계 관행에 비춰 이번 계약이 AI 서버용 제품의 공급 부족과 높은 수요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도 2027년 이후 공급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전체 MLCC 시장에서는 점유율 25%로 2위지만 기술 난도가 높은 AI 서버용 시장에서는 40% 이상을 차지하며 1위에 올라 있다. AI 서버용 MLCC는 105도 이상의 고온과 100볼트 이상의 고전압을 견뎌야 해 진입장벽이 높다. 이처럼 소수 업체만 공급이 가능한 만큼 삼성전기가 기술력을 앞세워 고부가 시장을 선점했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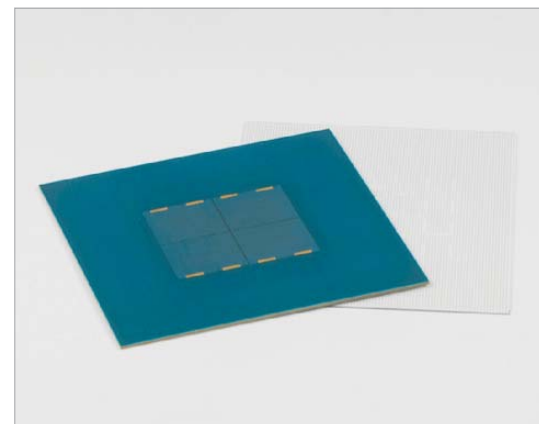
AI 서버 핵심 부품 3종을 모두 생산하는 기업은 삼성전기가 유일하다. MLCC 세계 1위인 일본 무라타는 패키지 기판 사업이 없고 기판 강자인 일본 이비덴은 MLCC를 생산하지 않는다. 삼성전기도 지난 달 실리콘 커패시터 제품 설명회에서 이들 3개 제품군을 앞세운 통합 공급 전략을 공식화했다.

◆엔비디아 이어 퀄컴까지…수요가 생산능력의 1.5배

빅테크 공급망도 넓어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지난 달 퀄컴의 AI 데이터센터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FC-BGA 양산에 돌입하면서 스마트폰용 반도체에 그쳤던 퀄컴과의 협력을 데이터센터로 확장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용 기판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어느 진영이 성



삼성전기 MLCC.



삼성전기가 생산한 유리기판.

/삼성전기

장해도 삼성전기 부품이 공급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수요는 이미 공급을 크게 웃돌고 있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서버·데이터센터용 FC-BGA의 수요가 생산능력보다 50% 이상 많다”며 “보완 투자를 하고 일부 공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사업장과 베트남 생산법인을 최대치로 가동하고도 주문을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15조·베트남 증설…유리기판 합작사 설립

생산능력 확대는 국내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기는 이달 초 부산사업장에 15조원을 투자해 패키지 기판과 MLCC의 핵심 생산기지로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생산법인에도 약 12억달러(약 1조8000억원) 규모의 FC-BGA 증설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13년 베트남 법인 설립 당시 투자액과 맞먹는 규모다.

차세대 기판 준비도 본격화했다. 삼성전기는 이달 초 일본 스미토모화학그룹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유리기판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유리 중심층) 생산 합작법인 ‘글라섬’ 설립 본계약을 체결했다. 총 출자 규모는 약 4800억원으로 삼성전기가 지분 66%를 보유한다.

합작법인은 경기 평택에 생산거점을 두고 2027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한다. 유리기판은 기판의 중심층을 유리로 대체한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열에 의한 휘어짐이 적어 대면적 AI 반도체에 적합한 소재로 꼽힌다. 삼성전기는 소재 단계부터 경쟁력을 확보해 유리기판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무라타 증산 맞대응…가격 주도권이 관건

과제는 세계 1위 무라타와의 경쟁이다. 무라타는 전체 MLCC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업체로, AI 데이터센터용 커패시터 수요에 대응해 약 800억엔 규모의 추가 설비투자를 발표하고 증산에 나섰다. 무라타는 최근 고객사에 MLCC 가격 인상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져 삼성전기의 가격 전략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AI 서버용 고사양 MLCC는 소수 업체가 과점하는 시장인 만큼 두 회사의 증설 속도와 가격 정책이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기판에서도 이비덴 등 선발 업체와 기술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품귀 국면에서 확보한 가격 협상력과 3종 일괄 공급 체계를 실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장 사장은 유리기판 합작법인 설립에 대해 “글라스 코어의 핵심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양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차세대 반도체 기판 시장의 패러다임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1960년대 한 기업가의 말입니다

저희의 희망은
그리고 희망은
도저히 아티팩트이다
은근의 표정은
소비자 디자인
소비자 디자인
저희의 희망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바뀌어 있다

국힘 원 구성 합류… 민생국회 문 열렸지만 검찰개혁 ‘전운’

오늘 의총서 7개 상임위원장 선출
형소법 개정안에 정국 급랭 우려
민주당, 국회법 개정 추진 예정

국민의힘이 국회 원 구성 작업에 착수하면서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정상 운영된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이라는 초거대 쟁점 압박이 다가오고 있어 이와 맞물려 민생·경제 입법이 적시에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 추천권 협상을 합의하면서, 원 구성 보이콧을 외쳤던 국민의힘에 숨통이 트였다. 국민의힘은 22대 후반기 원 구성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몫의 7곳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구체적으로 이만희(보건복지위원장)·김성원(산자중기위원장)·김희정(교육위원장)·임이자(성평등가족위원장) 의원 등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이양수 의원은 여당과의 합의에 따라 정보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각각 1년씩 맡는다. 김정재·송석준 의원은 국토교

통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했다. 다만, 국토교통위원장은 4선의 유의동 의원이 후보등록을 하면서 김정재 의원과 경선이 치러진다.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국민의힘이 관련 입법을 논의할 산자중기위

원장을 가져간 것이 눈에 띈다.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기국회 내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이다.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은 의사일정 작성권과 회의 진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쟁점법안을 상정하지 않거나 회의 자체를 열지 않으면 법안 심사는 지연된다. 민주당도 이를 인식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곧 수정안을 마련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민생·경제 입법 논의를 집어삼킬 블랙홀 같은 쟁점이다.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하반기 정국은 초반부터 급랭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2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학계와 시

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향으로 수정안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론을 모으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 작은 빈틈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동된다”면서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청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무너트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신들을 향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때마다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반복해 왔다”며 “그래서 국민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찰개혁’이 아니라 ‘권력 보호법’, ‘방탄 입법 시즌2’라고 의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확정 땀 시장직 상실

명태균 여론조사 2100만원 대납 혐의
법원,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정치자금법 알면서도 인정 안 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오 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 측이 명씨에게 여론

조사를 의뢰하고, 김씨가 조사 비용을 대신 납부한 행위를 하나의 정치자금 제공 과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행위를 여론조사 실시 목적과 결부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내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납된 금액이 21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조사 가운데 3차례는 공표됐고, 7차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오 시장의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의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 문항을 주고받는 등 조사 과정에 관여했고,

김씨가 오 시장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1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 없이 제3자에게 부담시켰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도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토대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이라며 수사와 기소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진 기자 lhyj@



오세훈 서울시장의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靑 “美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 예의주시”

산업장관·통상교섭본부장 방미 예정

청와대는 22일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주 방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7월 24일(현지시간) 글로벌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면서 “금주에 방미하는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국 상무부, USTR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301조를 찾았다. 무역법 301조 관세는 오는 24일 만료될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한다.

우리나라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실시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조사에서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국가로 발표됐다.

‘강제노동 관세’는 10~12.5% 범위로 부과될 계획이고, ‘과잉생산 관세’ 규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산 와인 등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 산불 연기가 미국 북동부 대기를 뒤덮자 ‘캐나다가 손해를 배상하든,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든 해야 한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서예진 기자 syj@

李 대통령, 공공·필수의료 국가책임 강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주제
복지부, 공공의료 강화 전략 발표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22일 공공·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 수가 문제나 의료사고 관련 책임을 국가가 해결해야 공백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지역의료 역시 공적 역할 강화에 초점을 뒀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어디에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모자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모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선 공공보건의료원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모듬발언에서 “의료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했다.

이어 “제가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본 일이 있는데, 그 때

‘교과서에 있는 대로 다 하려면 인정된 치료비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러다가 산부인과 안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 든 생각이 ‘내가 법정에서 이렇게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과실, 즉 주의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나, 이걸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경험 때문에 현장의 의료인들이 이런 위험 영역에서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을 상당히 이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생긴 공공·필수·지방의료 공백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기에 제도를 보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줌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지방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역시도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모자의료체계 강화, 공공보건의료원 도입 외에도 전국을 대진료권(5·3특), 중진료권(1~8개시군구), 소진료권(시군구)으로 체계화해 지역 연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모자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현재 2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모자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중앙과 지역 단위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예진 기자 syj@



2026년 SK의 생각입니다

AI시대불안과기대는
도저히아티며이다
은니표깃은이다
소비다디치드
노아구구비스
불안은기대도
비극수이다

SK는 긍정의 힘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중동 불안·美 금리인상 전망… 금 값 내려도 달러값 오른다

‘안전자산’ 달러 1년새 최고수준
금값 연초 역대최고 대비 23%↓
“국제유가 오름세, 강달러 지속”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가 공고해지고 있다. ‘중동사태’에 기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고, 미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도 뚜렷해지며 달러 수요를 끌어 올려서다. 달러가 금을 비롯한 다른 안전자산을 앞지르는 가운데, 달러값도 최근 1년새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22일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 지표인 달러인덱스(DXY)를 산정하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ICE)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 장 마감 당시 달러인덱스는 101.0로 집계됐다. 지난 52주(1년) 간의 최저치인 95.6과 비교해 약 5.6% 높고, 지난 6월 24일 기록한 연중 최고치인 101.8과의 차이는 0.8%에 그쳤다.

달러인덱스는 100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달러의 강세, 낮을수록 달러의 약세를 나타낸다. 지난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출범 당시 약 108 수준이었던 달러인덱스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의 금리인하 기대감과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같은해 6월 약 96까지 하락했고, 이후 97~98 수준에서 횡보를 지속했다.

지난달 말부터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값이 급등한 것은 ‘중동사태’로 촉발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재확산하고 있어서다.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달러는 불확실성이 확산할 때 값이 오른다. 특히 중동

사태로 원유를 비롯해 달러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달러값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월 말 미국의 대(對) 이란 군사작전으로 촉발된 중동사태는 6월 초 미국과 이란이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종전에 근접했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면서 최종 결렬됐다. 이후 미국과 이란은 다시금 교전에 돌입했으며, 최근에는 이란의 영향력이 큰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 해역의 봉쇄를 시도하며 지정학적 긴장감이 빠르게 고조된 상황이다.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에도 주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金) 가격은 약세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8월물 국제 금 선물 종가는 1트로 이온스당 4076.40달러다. 전일보다 1.51% 올랐지만, 지난 1월 말 기록한 역대 최고가인 5318.40달러와 비교해선 23.3%나 하락했다.

달러가 다른 안전자산과 비교해 독보적인 강세를 보이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어서다. 금은 이자가 붙지 않지만, 달러는 국제-예금 등을 통해 이자가 붙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은 달러 가격을 끌어올린다.

미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시카고거래소(CME)의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은 미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한 차례(25bps, 1bp=0.01%p) 이상 인상할 가능성이 87%로 전망한다. 두 차례 이상

인상할 것이란 전망도 49.7%에 달한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뚜렷하고, 일자리 지표 등 경제 지표도 양호하다는 분석에서다.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중동사태가 단기간 내에 진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달러의 강세 요인도 여전해서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즉각적인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물류 차질 가능성이 한층 확대하고 있다”라면서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유정 하나은행 연구원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기 협상 기대가 약화됐다”라며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 속에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대체 관세 부과 예고 소식까지 더해지며 달러 강세폭이 확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대출 우대금리 조건에 체크카드 실적 인정

은행 금리감면 조건 안내 강화
카드 이용실적 산정방식 개선

은행 대출의 우대금리 조건으로 요구되는 카드 이용실적 산정 기준이 간소화된 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실적으로 인정하고, 카드 이용실적 제외 항목은 은행별 4~8개에서 1개 안팎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대출 금리감면 조건과 관련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카드 이용실적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은행은 대출 약정 과정에서 급여이체와 적금 가입, 일정 금액 이상의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깎아주고 있다. 그러나 카드 이용실적 산정 기간과 선결제·결제 취소 처리 방식, 가족카드 합산 여부 등이 은행마다 달라 관련 민원이 반복돼 왔다.

실제 카드대금을 미리 결제했다는 이유로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족카드 이용액이 합산되지 않아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카드사의 실

적 산정 기간과 은행의 금리감면 실적 산정 기간이 다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앞으로 은행은 대출 약정서와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 이용금액 산정 방식과 실적 제외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카드 결제 취소와 선결제 처리 방식, 가족카드 합산 기준, 결제일 변경 시 실적 인정 방식 등도 안내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대출은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우대금리 조건을 정기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카드 이용실적 제외 대상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 은행들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리볼빙, 연회비,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이용액 등을 은행별로 4~8개기량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선 이후에는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이용액 등 은행별 1개 안팎만 실적에서 제외한다. 체크카드 이용액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카드 종류에 따른 금리감면 수준의 차이도 없애기로 했다.

카드 할부 결제는 할부기간 전체에 걸쳐 실적으로 반영된다. 가령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현재는 결제한 달에만 360만원이 실적으로 잡히지만, 앞으로는 6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씩 실적으로 인정된다.

개선안은 은행별 약정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신규 대출 고객부터 오는 9~10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6월 30일부터 먼저 시행했다.

은행별 잠정 시행일은 국민은행 10월 6일, 신한은행 10월 30일, 우리은행 9월 30일, 농협은행 10월 1일, 기업은행 9월 30일, SC제일은행 10월 19일 등이다. 기존 대출 고객은 은행별 전산체계 정비 상황에 따라 오는 10월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출 금리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키고 관련 분쟁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카드론 줄고 현금서비스·리볼빙 증가

금융당국, 카드론 규제 강화 기조
‘경기 불황’ 급전수요 타 상품 이동

카드론 증가세가 한달 만에 꺾였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강화되면서다. 반면,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잔액은 증가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여전한 급전 수요가 다른 대출성 상품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신용카드사 9곳(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의 카드론 잔액은 42조9093억원으로 집계됐다.

43조원을 넘어섰던 전달 대비 3441억원 감소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앞서 카드론은 지난 4월을 제외하고 올해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왔다. 특히, 5월에는 가정의 달 수요,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등의 영향이 맞물려 최대치(43조2534억원)를 기록했다.

카드론이 한 달 사이 감소세로 전환한 배경으로는 금융당국의 카드론 규제 강화 기조가 꼽힌다. 카드사들은 당국의 카드론 관리 주면에 따라 카드론 마케팅을 제한하고, 신규 취급 규모를 축소하면서 증가세를 역전해 왔다.

문제는 카드론 잔액이 줄어든 대신 현금서비스 잔액과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현금서비스 잔액은 지난달 6조7842억원으로 전달(6조5038억원) 대비 2804억원 증가했다.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같은 기간 322억원 오른 6조832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현금서비스의 경우 올해 2~5월 증감을 반복하다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맞물리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현금서비스 잔액 증감액은 지난 2월 -804억원, 3월 +2687억원, 4월 -915억원, 5월 +3073억원, 6월 +2804억원 등이다.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급전 수요가 여전한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건설사 전반적 매출 감소… 수주는 회복세

2분기 실적 오늘부터 순차적 공개
현대건설, 매출·영업익 동반 감소
신규수주 19조, 연간목표 68% 달성
대우건설, 영업익 1500억 2배 급증
현대산업개발, 매출 줄고 영업익 늘어

건설경기 회복이 지체되면서 올해 2분기에도 건설사 외형은 역성장을 이어간 것으로 추정됐다. 해외 원전 수주도 아직은 기대감에 그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반도체 공장 증설과 데이터센터 투자에 따른 수혜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원가율 안정과 함께 선별 수주 등 내실 다지기로 수익성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23일 IPARK현대산업개발과 삼성E&A를 시작으로 29일 삼성물산, 31일 현대건설이 2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매출은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영업이익은 건설사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6조7810억원, 2005억원이다. 전년 동기과 비교하면 각각 12.2%, 7.6% 감소한 수준이다. 주택 원가율 개선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사의 준공 임박 프로젝트에서 원가 정산을 마무리하면서 당초 우려보다는 선방했다.

수주는 눈에 띄게 회복됐다. 신규수주는 1분기 4조원에 못 미쳤던 것과 달리 2분기에만 19조원의 수주가 집중됐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2분기 미국 현대제철 전기로 제철소(5조4000억원)와 북경역세권 복합개발(3조원), 현대엔지니어링 카자흐스탄 가스처리시설(2조4000억원) 등을 수주해 연간 수주 가이던스의 68%를 달성했다”며 “하반기는 원전 수주가 재차 가시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우건설은 매출 2조269억원으로 10.8% 감소하지만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1500억



주요 건설사들의 2분기 실적이 23일부터 발표된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원으로 예상됐다.

김기룡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올해 연간 영업손익은 흑자 전환할 것”이라며 “2023년 4분기부터 시작된 미분양 주택 대손 반영과 2025년 4분기 박배스(부실·손실을 한꺼번에 반영)를 고려할 경우 올해 영업손익 변동성은 과거 대비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2분기 실적 추정치는 매출 9790억원, 영업이익 1204억원이다. 매출은 15.8% 줄지만 영업이익은 50% 증가한 수준이다.

GS건설은 2분기 매출 2조7700억원, 영업이익 12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3%, 2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규 분양이 줄면서 외형 축소가 불가피했고, 작년 2분기 대형 현장 정산과 도급 증액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DL이앤씨 역시 매출 1조7389억원, 영업이익 1201억원으로 각각 12.7%, 4.8% 감소할 전망이다.

하반기 전망도 밝지는 않다. 착공 감소로 사업기반 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동전쟁 여파로 공사원가 상승 압력도 높아졌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023년 이후 건설수주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건축착공면적의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사비 부담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원활한 착공 전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t@

BMW, 신규 브랜드 ‘알피나’ 출범 본질·품질 집중… 럭셔리시장 공략

핵심가치 ‘품격을 높이는 여정’
강력한 성능·편안한 승차감 초점
2028년 최상위 럭셔리 라인업 완성

“최근 럭셔리 소비는 과시보다 절제된 품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BMW 알피나는 이런 흐름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올리버 필레히너 BMW 알피나 브랜드 총괄 부사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페스타홀에서 진행된 BMW 알피나 브랜드 설명회에서 최근 럭셔리 시장의 변화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BMW그룹은 약 25년 만에 새로운 독자 브랜드 BMW 알피나를 공식 출범시키며 최고급 자동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BMW와 롤스로이스 사이의 럭셔리 시장을 잇는 전략 브랜드로 육성해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차별화를 꾀할 방침이다.

올리버 부사장은 “알피나는 성능과 최상의 주행 안락함이 균형을 이루는 자동차로 ‘세레니티(Serenity)’라는 고요한 평온함이 브랜드의 핵심 가치”라며 “브랜드가 추구하는 절제된 럭셔리리는 단순한



지난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페스타홀에서 진행된 ‘BMW 알피나 브랜드 설명회’에서 BMW 알피나 총괄 올리버 필레히너 부사장이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다.

유행이나 과시보다 본질과 품질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MW 알피나는 브랜드 핵심 가치로 ‘품격을 높이는 여정(Elevating Journeys)’을 제시했다. 단순한 스포츠 주행보다 장거리 이동에서의 안락함과 고속 안정성, 정교한 엔지니어링에 최적화됐다. 특히 ‘스포츠가 아닌 속도(Speed, Not Sport)’라는 철학 아래 강력한 성능과 편

안한 승차감을 동시에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업계에서는 BMW 7시리즈와 X7을 기반으로 한 알피나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차에는 BMW 알피나 전용 트윈과워 터보 V8 4.4리터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며, 향후 전동화 파워트레인도 추가될 예정이다. 외관은 데코 라인과 20스포크 휠 등 브랜드 고유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엠블럼과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를 적용했다.

BMW코리아는 BMW 알피나를 통해 국내 최고급 시장 공략에도 나선다. 2027년 초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고, 같은 해 하반기 전국 7개 전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어 2028년 초 신모델을 출시해 최상위 럭셔리 라인업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김강민 BMW 코리아 세일즈팀장은 “고객들은 브랜드 이름보다 상품성과 럭셔리 경험, 개성 표현 등 새로운 가치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BMW 알피나 역시 이러한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LGD, 상반기 100억 이상 실적개선 성과

2분기 매출 5.6조, 영업손실 1077억
희망퇴직 비용 영향… 본업 흑자 유지

LG디스플레이가 22일 열린 올해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인력 구조 조정과 희망퇴직을 실시한 결과 2400억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했고 이를 2분기 실적에 일회성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지난 4년간 2분기에 고질적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일회성 비용 제외시 2분기 적자 상황에서 탈피한 것이 꽤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날 연결 기준 2분기 매출 5조6121억원, 영업손실 1077억 원 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2분기 실적은 계절적 비수기와 일회성 비용에도 불구하고 사업 체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측은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사업 본연의 수익성은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상반기 전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였을 때 100억원 이상의 실적 개선을 달성했다”며 “올해 상반기에 계절적 비수기라는 특성과 일회성 비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OLED 중심의 사업 구조 규모와 성과가 말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LG디스플레이는 OLED 중심 사업 확대 전략을 이어간다. 아울러 OLED 모니터 사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전체 대형 OLED 출하량에서 OLED 모니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0% 초반에서 올해 약 2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게이밍 모니터 시장 성장세에 맞춰 고부가 제품 중심의 출하 확대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OLED 사업에서는 기존 생산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기술 투자도 병행한다.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성수기 효과를 기대했다. LG디스플레이는 3분기 대형 OLED와 모바일 OLED 출하 확대가 예상되며 전체 출하 면적은 전분기 대비 한 자릿수 중반 수준 증가하고, 면적당 평균판매가격(ASP)은 모바일 OLED 성수기 영향으로 10% 후반 수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차현정 기자

삼성중-S&L, FSMR 플랫폼 개발 ‘맞손’

(부유식 소형모듈원자력발전)

차세대 해상 에너지 인프라 시장 공략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개념설계를 완료한 부유식 소형모듈원자력발전(FSMR) 개발에 본격 착수하며 차세대 해상 에너지 인프라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중공업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원전 설계·엔지니어링 기업 사전트앤런디(S&L)와 범용 FSMR 표준 플랫폼 개발을 위한 상호 우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FSMR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해상 부유체에 탑재해 전력을 생산하는 차세대 해상 원전 플랫폼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육상 부지 확보가 어렵거나 전력망 연결이 제한적인 해안·도서 지역의 대안 에너지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개념설계 단계인 FSMR 프로젝트를 실제 상업 배치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특정 원자로 노형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 FSMR 표준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다양한 형태의 원자로를 탑재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확보해 선주와 고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김경희 삼성중공업 미래사업본부장(왼쪽)과 시벤 술카(Shiven Sulka) 사전트앤런디 최고원전책임자가 상호우선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객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또 FSMR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플랫폼 개발부터 인허가 지원, 건조 계획, 해역 배치 전략 등 사업화 전 과정에서 협력한다. 국제 및 미국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술적 완성도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삼성중공업은 자사의 해양플랜트 설계·조달·시공(EPC) 역량과 S&L의 원전 설계·엔지니어링 노하우를 결합해 글로벌 해상 원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AI·모빌리티 등 차세대 OLED 제품 대거 공개

K-디스플레이 2026

삼성D 센터페시아 시제품 첫 공개
LGD 27인치 5K OLED 패널 선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국내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K-디스플레이 2026’에서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를 겨냥한 차세대 OLED 기술을 대거 공개했다. 휴머노이드와 차량용 디스플레이, 게이밍·IT용 OLED 등 차세대 응용처를 앞세워 미래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 경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오는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K-디스플레이 2026’에 참가해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과 신제품을 공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eyond Screens, into Intelligent Display’를 주제로 차량용과 AI 디바이스, IT 제품 등을 중심으로 OLED 기술을 선보인다.

차량용 전시에서는 HIAA(Hole in Active Area) 기술을 적용한 센터페시아 시제품을 처음 공개했다. 화면 내부에 지름 80mm의 ‘빅 홀’을 구현해 기어 변속 다

이얼과 공조장치 송풍구를 디스플레이 안에 배치했으며, 새로운 슬라이더블 CID도 함께 전시했다.

AI 분야에서는 6.9형 OLED를 적용한 휴머노이드용 디스플레이와 원형 OLED를 적용한 ‘컴패니언 AI 토이’, AI 팻봇, AI 펜던트 등을 공개했다. IT 제품으로는 4K 360Hz QD-OLED 모니터와 DisplayHDR True Black 1400 인증을 획득한 탠덤 OLED 노트북 패널 등을 전시한다.

스마트폰 OLED 기술도 함께 소개했다. 무편광판 OLED 기술인 ‘LEAD 2.0’과 플렉스 크로마 픽셀, 플렉스 매직 픽셀(FMP) 등을 활용해 색재현력과 프라이버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OLED와 QD-OLED가 단순한 화면을 넘어 스마트폰, 노트북, 모니터, 차량, AI엣지 디바이스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일상을 연결하는 소통의 창, 디스플레이(Beyond Display, A Window to Connection)’를 주제로 OLED 제품군과 기술을 선보였다.

비전(Visionary) 존에서는 83인치 OL

ED TV 패널을 비롯해 모니터와 IT용 OLED 패널로 미디어월을 구성했으며, 휴머노이드용 P-OLED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홈(Home) 존에서는 24.5인치 540Hz 게이밍 OLED와 27인치 DFR 720Hz 게이밍 OLED, 39인치 5K2K 게이밍 OLED 등을 전시했다. 또 프라이마리 RGB 탠덤 2.0 기술을 적용한 OLED TV 패널을 통해 최대 4500니트 밝기와 저반사 특성을 소개했다.

워크(Work) 존에서는 27인치 5K OLED 패널을 처음 공개했다. 해당 제품은 AI 기반 고성능 콘텐츠 제작 환경에 적합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노트북과 태블릿, 스마트워치용 OLED 등 IT 제품군도 함께 전시했다.

모빌리티 존에서는 48인치 P2P(Pillar to Pillar) 디스플레이와 18인치 슬라이더블 OLED를 적용한 디지털 콕핏을 선보였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OLED 혁신 기술을 통해 시장 차별화를 실현하고, 고객 가치 중심의 사업 확장을 통해 성장 가속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K-디스플레이 2026’ 삼성디스플레이 부스.

/삼성디스플레이



‘K-디스플레이 2026’ LG디스플레이 부스.

/LG디스플레이

규제에 가로막힌 혁신기술… 민관, 신산업 장벽 허문다

중기부, 17개 단체와 규제협약

소통창구 구축해 규제·애로 발굴
공론화 거쳐 관계부처 개선안 건의
AI역량 세계 6위·운영환경 35위
업체, 사후규제·컨트롤타워 구축
노 차관 “범정부 협력, 규제합리화”

신산업 스타트업 규제 발굴과 해소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뭉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오후 서울 마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스마트데이터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17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최근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의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기존의 제도와 규제는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앞줄 왼쪽 5번째)이 22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에서 17개 단체와 신산업 분야 창업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고 있다”면서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범정부 협력을 통해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협·단체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규제·애로

기업 조사 및 규제 발굴 공동 협력 ▲규제 해소 위한 공론화 및 관계부처 건의 ▲각 기관의 규제 대응 협업 및 신산업 분야 애로사항 발굴·논의 등을 함께 추진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앞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정부 과제로 ‘자금 확보 및 투자활성화’에 이어 ‘각종 규제 완화’를 꼽았다.

영국의 토터스 미디어(Tortoise Media)가 2024년 발표한 글로벌 AI 지수에 따

르면 한국의 AI 역량은 세계 6위 수준이지만 법·제도·규제 등을 포함한 ‘운영환경’은 35위로 AI 역량에 비해 한참 뒤처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AI 기술의 시장화, 글로벌 확장을 위해선 규제 개선과 더불어 윤리, 책임, 신뢰 등 AI 거버넌스 체계도 동시에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업계에선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면 기술, 자본, 인재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국가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한다. 스타트업 성장→투자 확대→일자리 창출→소비 진작→세수 증가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지난 21대 대선을 맞아 정책 과제로 ▲규제철폐, 혁신성장 우선, 네거티브 규제 등 ‘진흥’ 중심의 AI 기본법 개선 ▲AI 관련 규제 정비, 산업 육성, 데이터 정책, R&D 예산 집행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구축 ▲AI 기술 발전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 제약 현행 규제체계 개선 ▲시장 유연성·기술 발전 속도 고려한 사후 규제 중심 자율적 규제 체계 전환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결합된 플랫폼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가칭)플랫폼 산업 진흥법’ 제정 ▲플랫폼 기업, 소상공인(임점업체), 소비자, 정부 등 공동 참여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통신3사, ‘레이밴 메타’ AI안경 시장 선점전

5개 모델 판매 출고가 69만~74만원 요금제 결합 할인으로 구매부담 낮춰

통신3사가 인공지능(AI) 안경 ‘레이밴 메타’를 동시에 출시하고 요금제 할인 혜택을 앞세워 AI 웨어러블 시장 선점에 나선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KT·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이날 수도권 주요 매장에서 AI 안경 ‘레이밴 메타 웨이퍼어러(Gen 2)’를 선보인다. 국내에는 총 7개 모델이 출시됐으며, 이 가운데 통신 3사는 안경 프레임과 렌즈 색상을 조합한 5개 모델을 판매한다. 프레임은 매트 블랙(무광)과 샤이니 블랙(유광) 두 종류로 구성된다. 렌즈는 클리어, 그린을 비롯해 편광, 변색 등으로 나뉘며, 판매 모델은 통신사별로 차이가 있다.

출고가는 통신 3사 모두 기본형 69만원, 일부 렌즈 적용 모델은 74만원으로 동일하다. 고객들은 가입한 통신사의 요금 할인 혜택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레이밴 메타 웨이퍼어러 2 제품. /LG유플러스

KT는 멤버십 고객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공식 온라인몰 다이렉트샵에서 요금69 요금제 다바이스 B형을 선택하면 월 1만6000원대(24개월 할부)로 구매할 수 있다. 두 가지 프리미엄 혜택을 담은 ‘조이스더블 다바이스’ 요금제를 선택하면 월 7000원(36개월)에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베스트 109·프로·맥스 요금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할부금 할인을 선택하면 월 최대 1만 2000원에서 2만4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부 기간은 24개월부터 36개월이다.

LG유플러스는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니아다바이스 혜택을 운영한다. 일반 요금 구간에서는 최대 51% 할인 혜택을 적용해 월 9357원에 이용 가능하다. 고가 요금제인 69·65 요금제 가입 고객은 최대 80% 수준인 월 3857원에 선보인다. 특히 편광렌즈가 장착된 모델을 선택하면 최대 75%까지 할인해 준다.

이번에 출시한 레이밴 메타는 글로벌 IT 기업 메타와 아이웨어 기업 에실로룩소 타카가 공동 개발했다.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와 3K 울트라 HD로 고해상도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저장 용량은 32GB다. 사진은 1000장 이상, 동영상은 30초 기준 100개 이상 저장할 수 있다. 오디오는 오픈이어 스피커와 5개의 내장 마이크가 탑재됐다. 충전 케이스를 활용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msjo@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런칭 행사

세단·SUV 장점 결합 넓은 실내

사전예약 1000대 내년 1만대 목표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차세대 순수 전기 플래그십 세단 ‘ES90’을 국내 시장에 출시하고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섰다. 특히 국내 전기차 판매 1만대 달성과 함께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격차를 좁히며 상위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2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ES90’ 런칭 행사를 진행했다. 이 모델은 볼보의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하면서도 가격은 7294만원부터 시작하는 등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다.

이윤모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는 “볼보 자동차는 내년 전기차 판매 1만대 달성과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90 라인업과 앞으로 나올 신차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해 프리미엄 시장 3위 안에 드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자신감은 올해 초 선보인 EX90의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지난 3월 국내 출시한 EX30



볼보자동차 순수 전기 플래그십 세단 ES90.

은 출시 당시 판매 목표인 500대를 훌쩍 넘어섰으며 현재 1000대가 넘게 계약됐다. ES90도 가격과 세부 사양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계약 1000명을 넘어 서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ES90은 차세대 전기차 전용 SPA2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플래그십 세단이다. 전기차 전용 설계를 바탕으로 세단의 우아함과 패스트백의 실용성, SUV 수준의 넓은 실내공간과 높은 지상고를 결합했다.

국내 판매 모델은 플러스와 울트라 트림으로 운영되며 가격은 싱글 모터 플러스 7294만원, 싱글 모터 울트라 8055만원, 트윈 모터 플러스 7960만원, 트윈 모터 울트라 8741만원, 트윈 모터 퍼포먼스 울트라 9541만원이다. ES90의 유럽 판매 가격은 약 1억 3000만원으로 국내보다 5000만원가량 비싸다. /양성운 기자 ysw@

BTS 부산 공연에 소상공인 매출 ‘들썉’

중기부, 공연 전후 주요상권 분석

지난 6월 중순 부산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공연으로 주변 소상공인 매출이 3.6% 늘어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콘서트 당일 소상공인 매출은 10%나 넘게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부산 일대에서 열린 BTS 월드투어 ‘하리랑’ 공연 전후로 부산 주요 상권의 매출 변화를 분석해 22일 결과를 내놨다.

중기부는 부산광역시 내 한국산용데이터(KCD) 생활밀접점중가맹점을 대상으로 공연일 전후 2주간(5월 30~6월 27일·총 4주간)의 매출 변화를 지난해 같은 기간(5월 31~6월 28일)과 비교·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BTS 콘서트에 힘입어 부산 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특히 콘서트 당일 매출은 전년 대비 11.1%나 올랐다. 업종별로는 전체 업종 가운데 외지인과 관광객 방문이 잦은 편의점업(6.5%), 이마용업(6.2%)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매출 상승률을 기록했다. 음식점업도 3.6% 올랐다.

부산 내 전체 상권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벽화마을과 독특한 카페로 인기가 높은 영도 상권이 13.7%로 가장 수혜를 입었다. 이외에 국제시장(11%), 서면(8.7%), 해운대(5.0%), 부산역 인근(4.2%) 상권 모두 부산 전체 평균 매출 상승률을 웃돌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도했다. /김승호 기자

KT

통합 광고 플랫폼

‘바로광고 2.0’ 선포

KT는 통합 광고 플랫폼 바로광고 2.0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바로광고는 광고주가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다이렉트 세일즈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옥외·IPTV 광고 등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계약해 운영하지 않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매체별 광고 상품과 단가, 집행 현황도 실시간으로 공개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중간 유통 단계도 최소화했다. 또 데이터 기반 광고 서비스도 제공한다. 광고주는 원하는 지역과 타깃 고객에 적합한 매체를 선택해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캠페인 운영이 가능하다. /조민선 기자

LG U+, AI 데이터센터 전력 시스템 개발

LS일렉트릭과 직류 전력체계 구축

LG유플러스가 종합 전력 기업 LS일렉트릭과 직류 기반 전력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 AI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따라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LG유플러스는 LS일렉트릭과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공동 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구자균 LG일렉트릭 회장을 비롯한 양측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진행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최근 AI 추론 수요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그래픽처리 장치(GPU) 서버가 밀집된 AI 데이터센터는 순간 전력 사용량 변동폭이 가파른 이유로 직류(DC) 기반의 전력 공급 체계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직류 기반 전력 기술 중 특히 800V 직류 배전 구조는 전력 변환 단계를 줄여 차세대 표준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협력을 통해 회사는 LS일렉트릭의 전력 솔루션 기술력을 AI 데이터센터 운영 역량과 결합해 차세대 직류 기반 전력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웃음 가득할 사장님의 내일에 하나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활기 넘치는 가게를
꿈꾸는 사장님을 위해
곁에서 든든히 함께하며

하나가 사장님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 개선 및 컨설팅 제공

공공배달앱 연계 소상공인 금융 지원

·공공배달앱(먹깨비) 이용 소상공인 보증한도 지원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확보 및 지원

·영세가맹점 매출대금 조기지급 프로그램 운영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초역세권 입지에 완성한 대규모 주거타운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하늘채 GS건설 컨소시엄

7호선 산곡역 앞 2706가구 규모 조성

GS건설·현대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일원에서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하늘채’를 선보인다.

산곡6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20개 동, 총 2706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0~84㎡, 128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타입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0㎡A 112가구 ▲50㎡B 44가구 ▲59㎡A 307가구 ▲59㎡B 334가구 ▲59㎡C 213가구 ▲75㎡A 136가구 ▲75㎡B 60가구 ▲84㎡A 20가구 ▲84㎡B 63가구 등이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산곡역 5·6번 출구 바로 앞 역세권 입지다. 7호선 이용 시 강남권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으며, 청라연장선도 공사 중이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부평IC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중동IC 등도 가까워 차량을 이용한 수도권 각 지역 접근성도 좋다.

인근에 산곡북초와 마곡초가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산곡중과 청천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외고 등 인천의 우수한 학군이 밀집해 있다.

부평경찰서와 부평구청, 신트리도서관,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과 생활편의시설도 인근에 자리한다. 이와 함께 부천현대백화점 중동점과 이마트 중동점, 상동호수공원, 웅진플레이도시 등 부천시 상동·중동의 생활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다.

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하늘채는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일부 타입에는 4베이, 팬트리, 드



레스룸 등 특화 설계를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숲의 경관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조경시설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산책로와 휴게공간, 놀이터, 어린이 집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통합형 중앙광장이 구성되며 수 공간도 함께 배치했다.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센터에는 운동, 학습, 휴식 등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마련된다. 운동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실내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등이 있고, 교보문고와 협업한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 남녀 1인 독서실 등의 에듀존도 갖췄다.

원도심 인프라·복합 생활권 갖춘 입지

천안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대우건설

두정·불당 생활권 동시에 누릴 수 있어

대우건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원에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는 지하 2층~지상 35층, 10개동, 총 1438세대 규모다. 전용면적은 59A㎡, 59B㎡, 74㎡, 84㎡, 101㎡, 114㎡ 등으로 구성됐다.

단지는 천안 원도심에 공급돼 기존 도심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두정·불당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인근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단국대학교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금융기관과 행정시설, 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는 번영로와 동서대로 등 천안 주요 간선도로 접근이 용이하고, 경부고속도로 천안IC를 통한 광역 이동도 편리하다. 두정역과 천안역을 이용해 천안 도심은 물론 수도권 및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직주근접 여건으로는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캠퍼스를 비롯해 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와 백석농공단지 등이 가깝다.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판상형 중심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높였으며, 넓은 동간거리와 효율적인 단지 배치를 통해 개방감도 확보했다. 실수요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특화설계를 통해 수납은 물론 공간 활용도까지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어린이놀이터와 유아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경로



당, 게스트하우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에너지 절감 및 생활 편의 시스템과 입주민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해 상품성과 주거 편의성도 높였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는 천안 원도심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교통환경, 직주근접 입지를 모두 갖춘 브랜드 대단지”라며 “다양한 평면 구성과 푸르지오만의 차별화된 상품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을 바탕으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만에 들어서는 원도심 브랜드 대단지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한화 건설부문·현대건설

진주 최초의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 아파트

한화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은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일원에서 대단지 아파트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를 분양한다.

이현1·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전용면적 59~110㎡ 총 1032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211가구 ▲59㎡B 21가구 ▲72㎡A 149가구 ▲72㎡B 96가구 ▲84㎡A 384가구 ▲84㎡B 103가구 ▲110㎡A 6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 분

양 물량은 전용면적 59~84㎡ 398가구다.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가 들어서는 이현동 일대는 진주 원도심 생활권으로 교육·교통·문화·자연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반면 신규 분양은 2005년 1268가구 이후 처음이다. 특히 포레나와 힐스테이트가 함께 선보이는 진주 최초의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 아파트이며, 이현동 첫 메이저 브랜드 대단지다.

단지는 인근 진주대로와 순환로를 통해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하며, 서진주IC가 인접해 통영대전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통한 사천·창원 등 주요 도시 접근성이 좋다. 진주시외버스터미널과 진주고속버스터미널은 차량으로 10분대, KTX진주역은 20분대 거리에 위치해 있다.

단지에서 도보로 축석초와 대아중·고 등을 통학할 수 있으며, 반경 약 1km 내에 봉원·봉곡초, 진주여중, 경진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다. 또한 진주시립서부도서관과 진주시 최대 학원 밀집지인 평거동 학원가도 이용 가능하다.

단지 반경 약 2km 내에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하이마트, 갤러리아백화점, 메가박스 등 대형 유통 및 문화 시설이 위치한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진주고려병원 등의 의료시설도 차량을 이용하면 1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품은 직주근접 단지

오산 세교 우미린 포레아시티 우미건설

청약통장 필요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어

우미건설은 경기 오산시 세교2지구 A-5블록에서 ‘오산 세교 우미린 포레아시티’를 공급한다. 최대 10년간 안심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다.

오산 세계 우미린 포레아시티는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69~84㎡, 총 105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후분양 형식으로 공급되어 계약 후 빠르게 입주할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되는 만큼 주거 안정성이 높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에서 자유롭고,

주택 수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이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이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상승률도 2년 단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HUG 임대보증금 보증으로 보증금 반환 걱정 없이 안심 거주가 가능하다.

단지는 오산대역 인프라와 세교 1지구 상권을 도보권으로 누릴 수 있으며, 세교 2지구의 마지막 민간 브랜드다. 세담초, 대호초, 대호중, 오산고교 등 학군도 인접해 있다. 이와 함께 수원·화성·평택·용인(계획)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배후 주거지로 직주근접 생활도 가능하다.

교통 인프라로는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1호선 오산역(오산역환승센터) 및 오산대역이 위치해 있다. 경부고속도로 오산IC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북오산IC 접근성이 좋으며, 단지 주변 버스정류장에서는 판교 및 강남역,



서울역까지 가는 광역버스 이용이 가능해 서울과 경기도 주요지역으로의 출·퇴근 또한 용이하다. 향후 오산역 GTX-C 노선 연장(계획)과 동탄도시철도 트램(예정) 등으로 수도권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성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지상에 주차공간을 두지 않는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실내체육관 등 운동시설을 비롯해 입주민 카페, 남녀 구분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선다.

“수도권·... 알짜 아파트 청약에 도

신축 희소성에 전세난까지 겹치며다. 건설사 역시 7월 말부터 시작되어 들기 전 서둘러 분양에 나서는 분위기다. 시가발사업지구 물량이 동시에 쏟아져 이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지역인 제1지역인 부천과 인천에서 공급이 급이 드물었던 경남 진주와 충남 천안다. 특히 최근 주목을 받은 반도체시와 오산시에서도 청약을 진행한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실거주 여건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경우 시세한 전문가는 “여름 비수기와 겹치며며 “산업단지 배후나 신도시, 정비청약 수요가 몰리는 선별 청약 기조



신도시에 아파트 공급 전하세요”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는 본격적인 여름휴가 비수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수도권과 신도시, 도시에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40곳으로 확대된 가운데 비수기 예고됐으며, 최근 몇 년간 신축 공급의 원도심에서도 아파트가 나온 벨트에서는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역세권에 위치해 교통과 교육, 생활 모두 갖춘 단지들이 선보이며, 차익을 노려볼 수도 있다. 부동산에서 지방은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 사업 등 수요 기반이 탄탄한 단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대연·문현 있는 더블생활권 앞세운 주거공간

부산 ‘더샵 트리센트’ 포스코이앤씨

일반분양 물량 156가구로 희소성 갖춰

포스코이앤씨는 부산시 남구 문현동 일원에 ‘더샵 트리센트’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80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56세대다.

더샵 트리센트가 들어서는 문현동 일대는 문현1·3구역 등 약 2만여 세대 규모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단지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대연동과 문현동의 경계에 위치해 ‘대연·문현 더블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더샵 트리센트는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대로

만 구성됐다.

교통 환경으로는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개골역 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인근의 수영로, 변영로, 동서고개로 등을 통해 센텀시티, 해운대 등 부산 주요 도심과 시외까지 이동이 편리하다.

교육환경으로는 도보권에 위치한 신연초를 비롯해 대연중, 해연중, 중앙고, 문현여고 등 남구의 초·중·고교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문현점, 경성대·부경대 상권, 못골시장, 남구청, 고려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는 인근에 천제산을 끼고 있는 우동산공원과 평화공원 등과도 인접해 있다. 또 부산의 핵심 금융 거점인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확장 사업을 비롯해 부산의 핵심 정책사업 중 하나인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등도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자산 가치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1군 건설사의 ‘더샵’ 브랜드 프리미엄과 뛰어난 상품성, 그리고 일반분양 156세대라는 희소성까지 더해져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건본주택은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교통·생활·미래가치 모두 누리는 단지

부천 ‘상동역 롯데캐슬’ 롯데건설

상동역 바로 앞… 강남권 환승 없이 이동

롯데건설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일대에서 ‘상동역 롯데캐슬’을 공급한다. 상동·중동 일대는 2018년 이후 처음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다.

옛 홈플러스 상동점 부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8층~지상 49층, 7개 동, 전용면적 84~192㎡, 총 1859가구 규모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타입이 1370가구로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며, 중대형 면적과 펜트하우스(3가구) 등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된다.

상동역 롯데캐슬은 지하철 7호선 상동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강남권 업무지구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

다. 차량 이용 시에는 중동IC를 통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접근이 수월하다. 인근의 부천종합운동장역은 이미 착공에 들어간 GTX-B 노선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GTX-D 노선이 지날 계획이다.

생활 인프라로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뉴코아아울렛 등 대형 쇼핑시설과 함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부천시청 등 의료·행정시설이 인접해 있다. 상동호수공원과 부천중앙공원도 가깝다.

교육 환경으로는 인근에 상원초, 상일초, 상일중, 상일고, 상동중, 상원고 등이 밀집해 있으며, 부천 최대 규모인 상동역 일대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은 복합개발사업도 예정되어 있다. 상동 529-2번지 일원의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사업은 융복합센터와 랜드마크타워 건립, 콘텐츠기업용지를 조성한다. 2028년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32년 준공이 목표



다.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은 R&D 종합센터, 스포츠 및 문화시설, 주거시설, 전략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원도심 교통 혼잡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사업도 예정돼 있다.

단지는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일부 타입은 3면 발코니 개방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주차 공간은 가구당 1.55대며, 단지 내 수영장과 프라이빗 다이닝룸(PDR룸), 140석 이상의 대형 독서실, 피트니스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산업·주거 있는 직주근접 프리미엄

힐스테이트 고덕엘리트 현대건설

전용면적 58·84㎡ 중·소형으로만 구성

현대건설은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고덕엘리트’를 분양한다.

단지는 평택시 고덕국제화지구 A31·34·35블록에 들어서며, 최고 33층 규모의 3개 블록으로 조성된다. 31블록 690가구, 34블록 679가구, 35블록 753가구 등 총 212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8·84㎡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됐으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단지는 고덕국제신도시 안에서도 산업·행정·주거 기능이 확장되는 지역에 들어선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기반이 형성돼 있으며, 평택시청 신

청사 조성과 중심상업지역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힐스테이트 고덕엘리트는 1호선 서정리역과 SRT·1호선 평택지체역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고덕국제신도시를 순환하는 BRT 노선 정류장이 단지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며, 수원발 KTX 직결사업도 추진 중이다. GTX-A·C 노선의 평택 연장 계획도 거론되고 있어 향후 광역교통망 확충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단지 주변에는 고덕8초와 고덕6중이 예정돼 있으며, 송탄고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한다. 국제학교 신설이 계획된 에듀타운도 인접해 있다. 평택시청 신청사 예정지와 중심상업지역, 상업용지 등이 가까워 향후 생활 인프라 확충도 예상된다. 판매·업무·의료시설 등이 들어설 생활권과 맞닿아 있으며, 함박산 중앙공원도 인접했다.

단지는 4베이(Bay) 위주의 평면과 판상형 중심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고려했다. 안방 드레스룸과 현관



팬트리, 일부 세대 알파룸 등 수납공간을 마련했고, 세대별 창고도 제공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GX룸,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돌봄센터 등이 블록별로 계획돼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고덕국제신도시 내에서 산업과 생활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입지에 공급되는 단지”라며 “중·소형 중심 구성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를 바탕으로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건본주택은 경기 평택시 고덕동 일원에 마련된다.

삼성 평택캠퍼스 인접한 신형 주거환경

평택 ‘엘리프 고덕 센트럴하이’ 계룡건설 컨소시엄

차로 5분 거리… 고덕국제신도시 인프라 공유

계룡건설컨소시엄(계룡건설·중흥건설·호반건설)은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ab-13블록에 있는 ‘엘리프 고덕 센트럴하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9개 동, 총 99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59·84㎡로 공급된다.

가장 큰 장점은 직주근접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까지 차로 약 5분 거리다. 이와 함께 고덕국제신도시 일대에는 로데오상권과 전통시장, 코스트코, 뉴코아아울렛 등 기존 생활 인프라가 이미 형성돼 있다. 평택아트센터와

중심상업시설, 행정타운, 국제학교, 중앙도서관 등 예정 개발이 더해지면 생활 편의성은 더 확대될 수 있다.

교통은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 이용이 가능하며, 단지 인근에는 BRT 정류장 조성이 예정돼 있다.

교육 환경으로는 단지 인근에는 유·초교가 계획돼 있다. 2028년 개교 예정인 고덕3초를 비롯해 민세중, 국제학교(예정), 중앙도서관(예정) 등도 가까이 조성될 예정이다.

함박산 중앙공원과 아홉거리 근린공원, 수변공원 등 녹지 공간이 인접해 있으며, 단지 내에는 산책로와 조형 특화설계를 적용해 낮과 밤 모두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상품 설계는 실거주 중심으로 구성된다. 단지는 전용 59·84㎡로 공급되며, 특히 전용 59㎡는 고덕국제신도시에선 오랜만에 공급된다. 전용 84㎡는 전 타입 4베이(Bay)



구조를 적용했으며, 팬트리와 알파룸, 드레스룸 등 수납 특화설계를 도입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세대당 1.68대 수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입지 뿐 아니라 실제 거주 만족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엘리프 고덕 센트럴하이는 삼성 직주근접과 서정리역세권, 고덕3단계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데다 희소성 높은 59㎡와 실거주 특화설계까지 갖췄다”고 말했다.

美 실적시즌 달군 AI… 증권사 투자정보 경쟁 뜨거워진다

AI 활용 어닝콜 서비스 진화

토스, 국내 기업으로 서비스 확대
카카오페이, 듀얼 화면 PIP 기능 도입
미래에셋·iM, AI 기반 번역·요약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면 개인투자자 황세나씨(42)는 새벽 잠을 포기한다. 예전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어닝콜을 직접 듣거나 다음 날 기사와 증권사 리포트, 투자 커뮤니티의 요약 기사를 기다려야 했다. 최근에는 모바일트레이딩 시스템(MTS)의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발언을 번역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줘 긴 어닝콜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코스피 조정과 원·달러 환율 하락을 계기로 미국 증시로 다시 눈을 돌리는 개인 투자자가 늘면서 AI 어닝콜 서비스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증권사들도 AI를 활용한 투자 정보 서비스 경쟁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달 1~21일 국내 투자



AI가 미국 기업 어닝콜을 실시간으로 번역·요약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미지.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28억7876만달러(약 432600억원)를 기록했다.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하면서 어닝콜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려는 투자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맞춰 증권사들도 AI를 활용해 경영진 발언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물론, 발표 내용과 주가 흐름을 함께 보여주는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이용자 수에서도 나타

난다. 토스증권은 지난 4월 국내 기업으로 AI 어닝콜 서비스를 확대한 이후 3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60만명을 확보했다. 국내 어닝콜을 통해 처음 서비스를 이용한 신규 이용자만 20만명에 달했고,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에는 19만명이 접속했다. 2분기에는 서비스대상을 70여개 국내 주요 기업으로 넓힐 예정이다.

토스증권의 AI 전략을 총괄하는 왕현민 프로덕트오너(PO)는 AI 어닝콜의 다

음 단계로 ‘정보의 맥락’을 제시했다. 왕 PO는 “우선은 정보 접근성을 더 깊게 해결하는 것”이라며 “실적 발표를 번역·요약해 전달하는 것을 넘어, 그 정보가 내가 보유한 종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맥락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뉴스·공시·실적이 쏟아져도 이걸 일일이 찾아 읽고 내 투자와 연결하는 것을 어려워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I 경쟁도 단순 번역을 넘어 투자 경험 전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실적 발표를 들으면서 다른 화면에서 시세를 확인하고 주문까지 할 수 있는 PIP 기능과 발표 내용에 맞춰 주가 움직임을 함께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주요 해외 기업의 어닝콜을 AI가 번역·요약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편 주가 급등락 원인까지 함께 분석해 제공하고 있다. iM증권 역시 미국 상장 전 종목을 대상으로 AI가 어닝콜 핵심 내용과 주가 변동 요인을 정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증권사들의 AI 경쟁에 대해 “증권사들의 AI 경쟁이

결국 투자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혜택은 투자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승부처는 AI 기능을 얼마나 많이 붙였는가가 아니라 고객이 실제로 신뢰하고 계속 쓰는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AI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투자자의 역할도 중요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왕 PO는 “AI가 정리한 정보를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며 “AI는 정보를 빠르게 정리하고 전달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개인의 투자 목적과 상황을 대신 판단해 주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성형 AI는 그럴듯하지만 부정확한 내용을 만들 수 있어 토스증권도 AI가 제공하는 정보에 원문 출처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 이 정보의 원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보 리터러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상반기 M&A 75건… 주식매수청구대금 급감

예탁원, 지난해보다 2.6% 감소

주주 지급 주식매수청구대금 54억

올해 상반기 기업 인수·합병(M&A)을 추진한 상장사는 75개사로 전년 동기보다 소폭 감소했다. M&A에 반대한 주주에게 지급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년 새 80% 넘게 줄었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상장사는 75개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7개사보다 2개사(2.6%) 감소한 규모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22개사로 전체의 29.3%를 차지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53개사로 70.7%를 차지해 유가증권시장의 두 배를 웃돌았다.

M&A 사유별로는 합병을 추진한 상장사가 62개사로 가장 많았다. 전체 M&A 추진 상장사의 82.7%에 해당한다. 나머지

는 영업 양수·양도와 주식교환·이전 등을 추진한 회사였다.

M&A 추진 상장사 수는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지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상장사가 M&A를 사유로 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54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316억원과 비교하면 262억원(82.9%) 줄었다.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한 상장사 수도 지난해 상반기 41개사에서 올해 상반기 33개사로 8개사(19.5%)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3개사가 총 15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7개사가 69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지급 회사 수는 85.7% 늘었지만 지급액은 78.3% 감소했다. 회사 수가 증가했음에도 개별 M&A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

매수청구 규모는 줄어든 셈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0개사가 주식매수청구대금 39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상반기 34개사가 247억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회사 수는 41.2%, 지급액은 84.2% 각각 감소했다.

전체 주식매수청구대금 가운데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지급액이 72.2%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한 감소 폭은 유가증권시장보다 컸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이나 영업 양수·양도, 주식교환·이전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이사회에서 결의했을 때 이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보유 주식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다수 주주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허정윤 기자

NH투자, 퇴직연금 장기 수익률 ‘업계 최고’

DC·IRP 원리금비보장 수익률 강세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장기 수익률 경쟁에서 증권업계 최고 성과를 거뒀다. 개인형퇴직연금(IRP) 10년 수익률은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장기 자산운용 경쟁력을 나타냈다.

22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2026년 2분기 퇴직연금 비교공시’에서 적립금 1조원 이상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5년 수익률이 각각 연 12.57%, 연 11.83%를 기록했다.

특히 IRP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10년

수익률은 연 10.35%를 기록해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DC 상품의 10년 수익률도 연 8.82%를 기록하며 장기 운용 능력을 입증했다.

단기 성과도 두드러졌다. DC 상품의 최근 1년 수익률은 56.65%, IRP는 47.80%를 기록했다. NH투자증권은 장기 투자 중심의 운용 전략과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체계가 안정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상품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약 900개의 ETF와 다양한 채권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증권업계 유일의 퇴직연금 전용 ELS를 운영 중이다. 적립식 ETF 자동투자 서비스와 AI 알고리즘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통해 장기 분산

투자와 자산배분도 지원하고 있다.

연금자산관리센터와 VIP연금팀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과 연금 전용 카카오톡 채널 운영 등 연금 가입부터 운용, 수령까지 생애주기별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재경 NH투자증권 채널솔루션부본부장은 “퇴직연금은 고객의 노후를 책임지는 핵심 자산인 만큼 안정적인 성과와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중요하다”며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과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종합평가 상위 10%와 증권업 우수사업자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증권사이기도 하다. /허정윤 기자

해외주식 Click

AI·반도체 레버리지 중심 매수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자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로 다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코스피 조정으로 국내 증시 비중을 줄이는 대신 미국 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반도체와 레버리지 상품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21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결계액은 28억7871만달러(약 4조 2712억원)로 집계됐다. 지난달 6억3296만달러(약 9391억원)의 약 4.5배에 달하는 규모로, 올해 2월 이후 최대 순매수 기록이다.

이는 지난 4월 순매도로 돌아선 이후 5월에는 9억3977만달러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지난달 다시 순매수로 전환한 데 이어 이달에는 매수 규모를 크게 늘리며 미국 증시

로 자금을 다시 쏟아붓고 있다.

서학개미의 투자심리를 자극한 배경으로는 코스피 조정과 환율 진정이 꼽힌다. 지난달 ‘꿈의 9000피’를 돌파했던 코스피는 이달 6500선까지 추락하며 약세를 보였고, 1500원을 상회하던 원·달러 환율도 1470~1480원대로 내려왔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기 더욱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미국 증시에서도 AI와 반도체에 집중됐다. 지난주(7월 15일~21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를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배 ETF’(SOXL)로 17억4038만달러를 순매수했다. 두 번째로 많이 담은 S 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5억 9922만달러)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메타(6471만달러), 아이온큐(5252만달러), 스페이스X(5762만달러) 등 AI·미래기술 관련 종목도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성장주 중심의 투자 전략을 이어갔다. /신하은 기자 godhe@

미래에셋 美 지수 ETF 순자산 30조 돌파

국내 시장 점유율 50% 웃돌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 대표지수 상장지수펀드(ETF) 2종의 순자산 합계가 30조원을 넘어섰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TIGER 미국S&P500 ETF’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의 순자산 합계는 30조99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대표지수 추종 ETF 전체 순자산의 50%를 웃도는 규모다.

개인 투자자 자금도 두 상품에 집중됐다. 올해 들어 지난 21일까지 두 ETF의 개인 순매수액은 총 5조3373억원으로 같은



기간 국내 상장 미국 대표지수 ETF 전체 개인 순매수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두 상품은 국내 상장 S&P500 및 나스닥100 추종 ETF 가운데 가장 큰 순자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ETF 순자산 규모에서도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 있다.

/허정윤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구윤철 “중동 긴장 재고조… 에너지 수급·공급망 관리 만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비상경제본부회의, 장관회의 주재
원유·나프타, 지난해 이상 물량 확보
석유류 최고가격제 세부 검토 착수

미국-이란 간 잦아진 무력 충돌에 정부가 대응 수위를 다시 높인다. 국제 공급망 불안이 재차 대두될 가능성에 맞서 석유류 등의 선제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로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특히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유와 나프타의 경우 8월까지 지난해 수준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고 나프타 파생상품 등 핵심품목 재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향후 불확실성이 큰 만큼, 그간의 수급 안정 조치를 유지하고 추가 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류 최고가격제(가격 상한)와 유류세 인하 조치 등에 대한 세부 검토에 다시 착수했다.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 점검 ▲여수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

현황 및 지원패키지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 ▲3대 메가 프로젝트 연구지원단 구성·운영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경제의 구조 혁신을 통한 새로운 원동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구 부총리는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산업은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는 등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소득 5만불 달성을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발표한 ‘대산 1호’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 사업재편 계획인 ‘여수 1호’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본격화한다.

구 부총리는 “노후 NCC(나프타분해시설) 설비 2기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고부가·친환경 전환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했다. 정부는 재무구조 개선에 5450억 원을 증자하는 등 자구노력과 함께 고부가 전환·인프라 구축 등에 25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여수1호의 성공적 사업재편을 위해 채권단과 함께 7000억 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구상 중이다.

아울러 고부가 전환 신규자금 등 4500억 원의 금융지원을 비롯해, 수입자금 대출보증을 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

이다. 구 부총리는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공사의 다단계 도급구조도 개선하고, 임금·대금 체불이 없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발주자가 대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이 다시 하수급인에게, 또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및, 발주자가 하수급인·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편해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책연구기관 합동으로 전담 연구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정책 수립과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프로젝트별 기술지원 전담반(TF)을 꾸리고, 경제·사회 각 부문과 연계한 발전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여수 석유화학 사업 재편… 정부 7000억 투입

산업부, 4개사 사업재편계획서 승인
5450억 유상증자로 여천NCC 부채 상환
향후 신설통합법인 설립 절차 완료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지인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글로벌 시장 약화와 공급과잉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이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 등 4개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전날(2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은 각각 보유 중인 폴리에틸렌(PE), 접착·도료용 수지 등 다운스트림 사업 부문을 현물출자한다. 이와 동시에 롯데케미칼은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의 나프

타분해시설(NCC)과 PE·PP(폴리프로필렌) 등 기초소재 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여천엔씨씨와 통합, 신설통합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여천엔씨씨의 주주사인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은 총 5450억원(각 2725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여천엔씨씨의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배관 및 인프라 구축, 고부가 제품 전환 등 사업재편 이행을 위해 총 2532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총 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 세제, 인허가,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7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이번 사업재편 가동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 분할·합병과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와 지방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사업재편 기업이 중복자산을 가동중단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는다. 또 국제청사전 담면 제도를 통해 적격합병에 대한 세법 해석을 요청할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참여 기업들은 향후 기업 간 합병 관련 계약체결 및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 절차 등을 거쳐 신설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날 사업재편승인기업 4개사 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끝까지 추진한 모든 기업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사업재편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협 쌀 사용을 인증받은 프랑스 파리 지역 한식당 ‘한옥’

유럽 내 농협쌀 사용 한식당, 20곳으로 확대

‘해외 한식당 농협 쌀 인증제’
20호점 인증패 수여식 열어

농협중앙회는 국산 농협 쌀을 사용하는 해외 한식당이 총 20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해외 한식당 농협 쌀 인증제’ 20호점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20호점은 파리 시내 국립기대동양박물관에 입점해 있는 ‘한옥’(HANOK)이다.

해외 한식당 농협 쌀 인증제는 해외 한식당에 국산 농협 쌀 사용을 인증하는 사업이다. 1호점인 파리 한식당 ‘순 그릴 샹젤리제’를 시작으로, 작년부터 파리 중심가 주요 한식당들이 참여했다. 시행 1년여 만에 인증 한식당 20호점을 배출했다.

이번 성과에 대해 농협은 “3년 연속 프랑스에 고품질 담양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했다”며 “일반 소비자(B2C)를 넘어 현지 외식업체(B2B) 중심으로 수출 기반을 확대할 결과”라고 평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김성환 기후장관, 산업계 탄소중립·순환경제 현장 행보

삼성물산 주거성능연구소 등 방문
냉난방 일체형 히트펌프 점검하고
냉매 처리·회토영구자석 현장 확인

정부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내 주요 기업의 핵심 기술 실증 현장을 찾고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이 22일 경기도 소재 삼성물산 주거성능연구소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업체인 수도권자원순환센터 등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 장관은 삼성물산 주거성능연구소를 찾아 ‘냉난방 일체형 히트펌프’ 실증 현장을 점검했다. 일체형 히트펌프는 외기의 열을 활용해 냉방과 난방, 온수를 하나의 설비로 공급하는 고효율 전기화 설비로, 건물 내 화석연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기후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2일 경기 용인시 삼성물산 주거성능연구소를 방문해 히트펌프 실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파악된 설치 여건과 제도적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공동주택 내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정책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내 22개 모든 카페와 구내식당에서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한 선도적 사례를 격려했다. 현재 이 모델은 삼성전자뿐만 아니

라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등 총 13개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 공급·회수 과정을 세밀히 살펴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기 전환을 촉진할 힌트를 얻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김 장관은 용인 수도권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인 냉매의 적정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구리·알루미늄을 비롯해 친환경 가전의 핵심 부품인 ‘회토영구자석’을 분리·선별하는 순환경제 규제 특례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올해 5월부터 LG전자와 이순환거버넌스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영구자석 회수 실증사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기후부는 폐가전에서 네오디뮴 등 희토류가 함유된 영구자석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본 사업의 실증 결과를 토대로, 관련 재활용 기준을 개선하는 등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부, 지방정부와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실무협의회 열어 가이드라인 설명

정부가 지방정부와 손잡고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역별 지방정부가 참석하는 ‘성장엔진 육성계획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성장엔진 육성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은 향후 성장엔진이 최종 선정되면 지방정부가 지역 내 앵커기업과 공동으로 수립할 ‘중장기 성장엔진 종합육성계획’의 실무 지침서다.

해당 계획에는 지방정부의 ▲앵커기업 투자유치 전략 ▲성장엔진 육성 비전 및

로드맵 ▲투자 촉진과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이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앵커기업, 지역혁신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권역별 주요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향도 소개했다.

정부는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재정, 금융, 세제, 규제, 기술, 인재, 인프라 등 7개 분야의 지원책을 맞춤형으로 묶어 제공하는 ‘7대 정책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와 연계해 과감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메가특구법’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결집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활전복 반값에 드려요”… 대형마트업계, ‘홈보양족’ 쟁긴다

롯데마트 정부·지자체 사업 연계 식재료·생활용품 등 할인 혜택

이마트 일주일간 ‘중복대전’ 행사 ‘한마리 영계·토종 닭백숙’ 특가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며 외식비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집에서 보양식을 챙겨 먹는 ‘홈보양족’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에 대형마트 업계는 오는 25일 중복을 앞두고 일제히 대대적인 할인전에 돌입한다.

22일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생닭과 장어, 전복 등 대표 보양 식재료부터 즉석 조리 간편식, 제철 과일과 여름 생활용품까지 대규모 할인 행사를 펼친다.

최근 집에서 즐기는 보양식 수요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이마트가 7월 1일부터 20일까지 매출을 분석한 결과, 백숙용 생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다. 피코크 간편식 삼계탕 매출 또한 17.4% 늘었으며, 키친텔리 코너의 장어 관련 상품 매출은 55.9%나 급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마트 제타플러스점 잠실점 닭고기 코너에서 백숙용 닭을 구매하는 고객의 모습. /롯데마트

증했다. 식재료를 직접 구매해 요리하는 수요와 간편하게 즐기려는 수요가 동시에 늘어난 셈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롯데마트는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자체 협력과 연계해 할인 폭을 대폭 넓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통해 ‘상생통닭 백숙용’과 ‘영계’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며, ‘복시즌 훈제 치킨 슬라이스’는 다량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준다. 간편 보양식을 찾는 고객을 위해

‘한마리 장어덮밥’과 ‘한판 훈제오리’를 특가로 내놓고,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행사카드 결제 시 ‘상운 삼계탕’ 전품목에 15% 할인을 적용한다. ‘요리하다’ 브랜드의 삼계탕 2종은 엘포인트 회원 대상 행사카드 결제 시 약 35% 할인한다.

해양수산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수산대전’도 진행한다. 손질 민물장어, 완도 활전복, 국산 생새우 등 주요 수산물을 20% 할인하며, 완도 활전복은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50%까지 할인율이 올라간다. 이 외에도 하우스 감귤, 사인머스켓, 성주 참외 등 제철 과일과 파프리카, 단호박 등 채소류를 할인 판매하며, 여름철 수요가 높은 냉면과 쫄면 등 냉장 간편식은 ‘1+1’ 또는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습기 제거제와 실내건조 세제 등 장마철 생활용품 할인도 함께 마련했다.

심영준 롯데마트·슈퍼 판촉마케팅팀장은 “중복을 앞두고 보양 먹거리와 제철 신선식품, 필수 생활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즌별 고객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할인 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마트 역시 같은 기간 ‘중복 대전’을 개최하고 보양식 관련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국내산 ‘한마리 영계’와 ‘토종 닭백숙’을 특가로 내놓고, ‘무항생제 두마리 영계’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40% 할인한다. 수산물 코너에서는 손질 민물장어와 완도 활전복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반값에 구매할 수 있으며, 국산 생새우도 할인가에 제공한다. 특히 24일 단

하루 동안 ‘한가득 흥계 해물탕’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 할인하고 구매금액의 20%를 e머니로 적립해 주는 이벤트를 연다.

수입육과 즉석 조리 식품 혜택도 다채롭다. ‘호주산 곡물 첨가미트’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고, 미국산 삼겹살과 목심은 30% 할인한다. 키친텔리 코너에서는 생닭 한 마리를 넣은 ‘늑두 삼계탕’과 ‘두마리 장어 영양덮밥’, ‘킹 양념장어구이’, ‘장어 강정’ 등 다채로운 즉석 보양식을 판매한다. 제철 식품으로는 ‘캠벨 포도’와 ‘대학 찹옥수수’, ‘파머스픽 흑미수박’ 등을 포인트 적립 할인가로 준비했다.

정우진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외식 물가 부담으로 집에서 직접 보양식을 준비하거나 간편하게 즐기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삼계탕 외에도 장어, 전복 등 보양식 식재료와 다양한 즉석 조리 상품, 제철 신선식품까지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홈플러스, 전국 핵심점포 영업 순차 재개

회생기한 확보… 구조혁신 속도 수도권 중심 배송권역 확대 예정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로 회생 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확보하면서 영업 정상화와 구조혁신 작업에 속도를 낸다. 다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회생 성공 여부는 향후 한 달여 동안의 정상화 성과에 달리게 됐다.

22일 홈플러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확보된 회생 기간 동안 DIP(긴급운영자금) 대출을 투입해 핵심 점포 영업을 재개하고 유동성 회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DIP 대출금이 집행되는 즉시 현재 임시휴업 중인 전국 67개 핵심 점포의 영업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영업을 재개하는 점포는 소요 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방식을 일부 조정한다. 복층 매장을 약 1000평 규모의 단층으로 바뀌어 영

업면적을 줄이고 식품과 PB상품, 고화전 생활품 위주로 판매해 현금 흐름을 빠르게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수도권에서 즉시 운영이 가능한 16개 점포부터 배송 서비스를 재개한 뒤 배송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영업 점포와 배송권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달한 자금은 상품 대금과 연체 임대료, 공공요금 등 점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급하는 데 활용한다. 지급이 지연된 직원 급여와 소상공인 입점업체 정산금도 순차 지급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생 기간 동안 구조혁신 작업도 마무리한다. 현재 임시휴업 중인 37개 부실 점포는 폐점을 추진하고 본사와 점포 운영 인력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들은 당분간 휴직 상태를 유지한다.

회생 절차가 연장됐다고 해서 정상화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법원이 향후 자금 조달 계획과 사업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한

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즉시항고를 기각하면 홈플러스는 지체 없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유통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회생 가능성은 되살아났지만 정상 영업과 자립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누적된 공익채권 규모가 약 93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확보한 2000억 원의 DIP 자금 상당 부분이 협력업체 미정산 대금 상환에 사용될 경우 추가 운영자금 확보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영업 기반이 크게 훼손된 점포 부담이 다. 지난 3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약 1200명의 직원과 700여 개 입점업체가 이탈했다. 중소 협력업체의 평균 미정산금도 7억 7000만 원 수준인 만큼, 협력업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상품 공급 체계를 복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서현 기자

다이소 “디퓨저로 장마철 향기롭게 보내세요”

디퓨저 모음전… 20종 상품 선봬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장마철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는 ‘디퓨저 모음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공간과 취향에 맞는 향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쿤달(KUNDAL), 알레(ALLE), 코코도르(COCODOR) 등 브랜드의 디퓨저를 포함해 총 2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쿤달은 대표 향을 담은 ‘리치퍼퓸 디퓨저’ 4종을 출시했다. 전문 조향사가 개발한 향을 적용하고 식물 유래 추출물을 함유했으며, 브라운 컬러의 용기와 골드 캡을 적용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향은 스위트체리, 소프트파우더, 러브인일랑, 퓨어송 등 4종으로 구성됐다.

알레는 사용 공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용량의 제품을 마련했다. 장미 모양 조화 스틱을 더한 200ml 제품은 코튼향과 블랙체리향으로 선보이며, 500ml 대용량 제품은 원코튼, 플라워가든, 스위트체리 등 3가지 향으로 구성됐다.



‘알레 장미 디퓨저 200ml’ 2종 /아성다이소

50ml 소용량 제품은 코튼향과 라벤더향을 담아 방이나 차량 등 좁은 공간에서 활용하기 적합하다.

코코도르는 욕수수를 발효해 얻은 주정을 베이스로 사용한 디퓨저를 선보인다. 100ml와 200ml 용량으로 출시되며 스위트체리, 소프트머스크, 로얄라벤더, 꽃시장 등 4가지 향으로 구성됐다.

생활 공간별 냄새를 관리할 수 있는 ‘냄새 제거 디퓨저’도 함께 판매한다. 욕실용 아쿠아향, 반려동물 공간용 머스크향, 주방용 레몬그라스향 등 공간 특성에 맞는 제품으로 구성했다.

/김서현 기자

소상공인 단체 “대형마트 영업·배송 규제 완화 중단해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논평 “지역경제 선순환 정책 우선 추진해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새벽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을 둘러싸고 소상공인 단체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새벽배송 규제 완화 추진은 중소 수퍼마켓과 골목상권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제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완

화 방안을 담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회는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자금 조성 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 논의나 실행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거대 유통기업 간 경쟁을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신속 추진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영세 중소 수퍼마켓에 대한 보호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시행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골목상권과 지역 유통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자본

력과 물류 인프라를 갖춘 대형마트가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까지 확대할 경우 동네 중소 수퍼마켓은 가격 경쟁과 배송 경쟁 모두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중소 유통업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공동 풀필먼트(통합물류) 시스템 구축, 모바일 주문 플랫폼 보급, 물류 인프라 현대화 지원 확대와 함께 지역화폐 활성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CFS, 인천 물류센터 화재 피해보상 나서

로켓그로스 입점 판매자 재고 전액 보상

쿠광폴필먼트서비스(CFS)가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로켓그로스 입점 판매자의 재고를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CFS는 화재로 재고가 소실되거나 영업에 차질을 겪은 판매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한 구역은 물론, 불이 번지지 않은 구역에 보관된 재고까지 모두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사 측은 화재 조사와 보험 처리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자체 책임 아래

선제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화재 피해 보상은 손해사정과 피해 규모 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CFS는 판매자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이 직접 번지지 않은 구역의 재고도 반출 지연이나 분진에 따른 손상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

CFS는 판매자별 재고 수량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오는 8월 중순부터 보상 규모와 지급 예정일, 필요한 절차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암세포만 정밀 타격... 방사선의약품, K-바이오 새 무기

퓨처켄, ‘프로스타뷰’ 국내 품목허가 상업화 모델 ‘현지 생산형’ 고도화 베트남 독점 라이선스, 공급·유통 듀켄바이오 ‘비자밀’ ‘뉴라체크’ 전국 12곳 제조시설, CDMO 확대 노바티스, 생태계 구축에 1400억 투입 SK바이오팜, RPT 치료제 개발

‘약 넣고 영상 찍으면 암세포 위치가 보이고 약은 암세포만 타격해 치료한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해 질병을 정밀 진단하고 치료하는 ‘테라노스틱스’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짧은 방사능 반감기와 까다로운 제조 공정 탓에 미개척지로 남아있던 방사성의약품 시장이 국산 신약 허가, 글로벌 시장 진출 등과 맞물리며 K바이오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2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퓨처켄은 올해 들어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프로스타뷰’ 국내 품목허가 획득과 함께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로스타뷰는 올해 5월 국내 식품의약



지난 21일 국내 퓨처켄과 베트남 하노이조사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대운 퓨처켄 대표(왼쪽)와 응우옌 테 빈 하노이조사센터 디렉터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퓨처켄

품안전처에서 제43호 국산 신약으로 승인됐다. 프로스타뷰는 전립선암 병변 진단에 쓰인다. 환자에게 정맥 투여 후 PET-CT 촬영을 하면 암세포 위치와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다. 임상 3상에서 CT, MRI 등 기존 영상검사 대비 진단 정확도를 유의하게 개선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퓨처켄은 방사성의약품 상업화 모델을 ‘현지 생산형’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완제품 수출 대신 핵심 소모품(카세트, 전구체, 시약 키트)을 독점 공

급하고 현지 파트너사가 최종 주사제를 제조·유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베트남 하노이 조사센터(HIC)와 ‘프로스타뷰’ 베트남 독점 라이선스 및 공급·유통계약을 체결했다. 퓨처켄은 계약금 10만 달러를 확보하고 향후에는 베트남 내 프로스타뷰 순매출의 15%를 경상 로열티로 더 받는다. 특히 제조기술 이전 및 2050년까지의 장기 로열티를 포함하는 계약으로 반복 매출 기반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다졌다는

평가다.

앞서 5월에는 인도네시아 의료가기 유통기업 TMI와 ‘프로스타뷰’ 공급·유통계약을, 이어 7월에는 인도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슈리지 이미징 및 진단센터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알자뷰’ 독점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다.

듀켄바이오 역시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을 중심으로 정밀 의학 생태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듀켄바이오의 ‘비자밀’, ‘뉴라체크’ 등은 치매 치료제를 투약하기 전,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 유무를 판단하는 데 쓰인다. 글로벌 치매 치료제 ‘레캠비’ 등의 처방과 함께 듀켄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진단제 역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다.

듀켄바이오는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87.5% 급증한 영업이익을 올리며 강력한 수익성을 증명했다.

이미 듀켄바이오는 전국 최대 12곳의 제조 시설을 갖췄고 이를 바탕으로 방사성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확대를 선언했다. 올해 안에 전용 연구소와 생산 공장 확충에도 단계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노바티스 등 글로벌 빅파마를

이 방사성 의약품 분야에 잇따라 진입하면서 위탁 생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흐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바티스의 경우,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와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 연구개발·생산·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약 14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의 방사성 의약품 제조 역량과 의료 인프라가 글로벌 수준임을 인정한 성과로 풀이된다.

국내 대기업 역시 국산 방사성 의약품 가능성을 높인다.

SK바이오팜은 NTSR1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RPT 치료제 ‘SKL35501’과 영상진단제 ‘SKL35502’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지난 4월 세계 최대 암 학회인 AACR에서 전임상 연구 성과를 공개하는 등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 한 신약개발 스타트업 관계자는 “암은 물론 중추신경계(CNS) 질환 등에서 국산 신약이라는 파이프라인을 쌓는 수준에서 R&D, 진단망, 생산거점 등을 잇는 K바이오 허브로 도약하는 준비 과정에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지씨씨엘, 글로벌 신약개발 통합 서비스 구축

젠파마텍 비임상 연구 모델 연계 개념검증부터 임상시험까지 효율화 韓·美·中 중심 마케팅·네트워킹 추진

GC녹십자그룹의 글로벌 임상시험 검체분석 기관 지씨씨엘이 지난 21일 글로벌 비임상 위탁연구기관(CRO) 기업 젠파마텍과 ‘글로벌 신약개발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에 신약개발 전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씨씨엘의 임상시험 검체 분석 및 관리 역량에 젠파마텍의 비임상 연구 모델을 연계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비임상 개념검증 단계부터 임상시험까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질환과 차세대 치료 접



지난 21일 (왼쪽부터)젠파마텍의 브랜드 윌킨슨 북미법인 대표, 조관구 지씨씨엘 대표, 상가오 젠파마텍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GC녹십자그룹

근법으로 영향력을 넓혀간다는 복안이다.

향후에는 한국,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공동 마케팅 및 네트워킹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젠파마텍의 브랜드 윌킨슨 북미법인 대표는 “미국 시장에서는 신약 후보물질 발견부터 임상 진입까지 더욱 빠르고 효율

적인 개발 경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고객사들이 비임상과 임상 단계 사이에서 보다 높은 연속성을 가지고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오 젠파마텍 회장은 “양사는 전 세계 환자들을 위한 신약개발을 가속화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관구 지씨씨엘 대표는 “이번 협약은 지씨씨엘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제약·바이오 고객사에 보다 통합적인 개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젠파마텍의 비임상 생체 내 효능평가 역량과 지씨씨엘의 임상단계 검체분석 전문성을 연계해, 고객사가 초기 연구에서 임상 개발 단계로 보다 효율적이고 연속성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월매출 1억 ‘으뜸스시’, 부산 명지점 개점

개점 기념 최대 20% 할인 혜택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으뜸에프앤비가 국내 전역의 핵심 상권에서 회전초밥 브랜드 ‘으뜸스시’를 확산하고 있다. 체계화된 운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내실 중심 성장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으뜸에프앤비는 22일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서 으뜸스시 제37호 매장으로 ‘부산 명지점’을 공식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매장은 부산 명지 지역 대표 상권인 대방디엠시티 센텀오션2차 상업시설에 입점했다. 대규모 주거 단지, 학원가, 오피스 등이 밀집해 있어 가족 외식, 학생 고객, 직장인 식사 등 다양한 소비층의 방문이 활발한 것이 특징이다. 또 우수한 접근성과 넓은 주차 공간까지 갖췄다.

이와 함께 으뜸스시 부산 명지점 개점을 기념하는 할인 행사도 열린다. 오는 24



으뜸스시.

일까지 해당 매장에는 전 메뉴 10% 할인, 리뷰 작성 시 추가 10% 할인 등 최대 20% 할인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

으뜸에프앤비는 올해 하반기 전국 단위 출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 충북 오창점(38호점), 제주 연북로점(39호점), 서울 김용뉴타운점(40호점)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9월에는 강원 춘천 명동점(41호점)도 추한다. 현재 제50호 지점까지 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 /이청하 기자

동화약품 전국 롯데리아 매장에서 제로음료 ‘소다 활’ 판매

동화약품이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첫 협업을 진행하며 소비자 접점을 확보하고 있다.

동화약품은 전국 롯데리아 매장에서 제로 슈거·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소다 활’ 판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롯데리아 세트 메뉴 주문 시, 기본 탄산음료를 소다 활로 변경하면 된다. 버거와 함께 ‘소다 활’을 경험할 수 있다.

지난 5월 출시한 소다 활은 동화약품의 가스활 코어농축액 10mg을 함유한다. 계피, 건생강, 소두구 등을 배합한 원료에 쿨링향을 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노폐물 제거하고 자외선 차단까지 한 번에”

동국제약 ‘마데카선헬드 패드’

동국제약이 피부결 정돈, 자외선 차단, 피부 진정 등을 한 데 담은 신개념 자외선 차단제를 선보인다. 동국제약은 ‘마데카선헬드 패드’ (사진)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피부부를 닦아내듯 사용하는 제품이다. 피지, 땀, 미세먼지 등 피부 표면의 노폐물은 제거하면서도 자외선 차단 성분은 피부결을 따라 고르게 밀착된다. 눈가와 코 주변 굴곡진 부위부터 목, 팔 등 넓은 부위까지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손에 묻는 잔여감을 줄일 수 있고 손으로 피부를 직접 만지지 않고 덧바를



진 피부를 진정시킨다. 또 10종 히알루론산 성분이 피부 보습을 강화해 준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마데카 선헬드 패드는 여름철은 물론, 캠핑, 골프, 등산 등 다양한 야외 활동 중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수 있어 위생적이다.

패드 한 장에 선크림 액상을 처방했다. 병풀추출물을 비롯한 시카 성분을 함유해 자외선과 외부 열 자극으로 민감해

사울바이오헬브와 함께 운영

국내 유망 바이오텍과 협업

삼성바이오텍이 국내 유망 바이오텍과 협업하며 K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삼성바이오텍은 ‘2026 서울 바이오허브-삼성바이오텍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 기업과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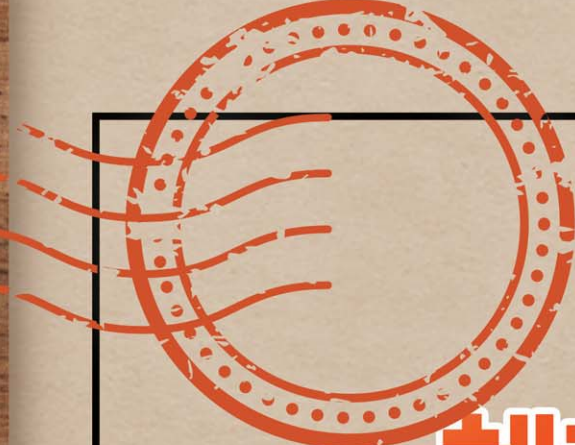
서울바이오허브와 삼성바이오텍이 함께 운영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국산 차세대 바이오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참여 기업으로는 ‘프레이지테라퓨틱스’와 ‘바이온사이트’가 최종 선정됐다.

프레이지테라퓨틱스는 표적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술을 갖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질병 원인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치료제 개발에 쓰인다. 바이온사이트는 화학단백질체학을 응용한 신약개발 연구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고 있다.

삼성바이오텍은 해당 기업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기술 고도화, 멘토링, 사업화 컨설팅 등 맞춤형 성장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최종 평가를 통해 공동연구, 기술이전, 공동 사업화, 전략적 투자 등 실질적인 협업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텍김경아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바이오 기술 발굴 및 조기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혜화역 내부 (1번 출구) 숨어있는 '독고'를 찾아라

그를 찾는 순간, 첫 번째 미션이 시작된다.

숨겨진 단서를 따라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비밀 미션을 완수하라.
미션 완료 후, **푸짐한 상품**을 수령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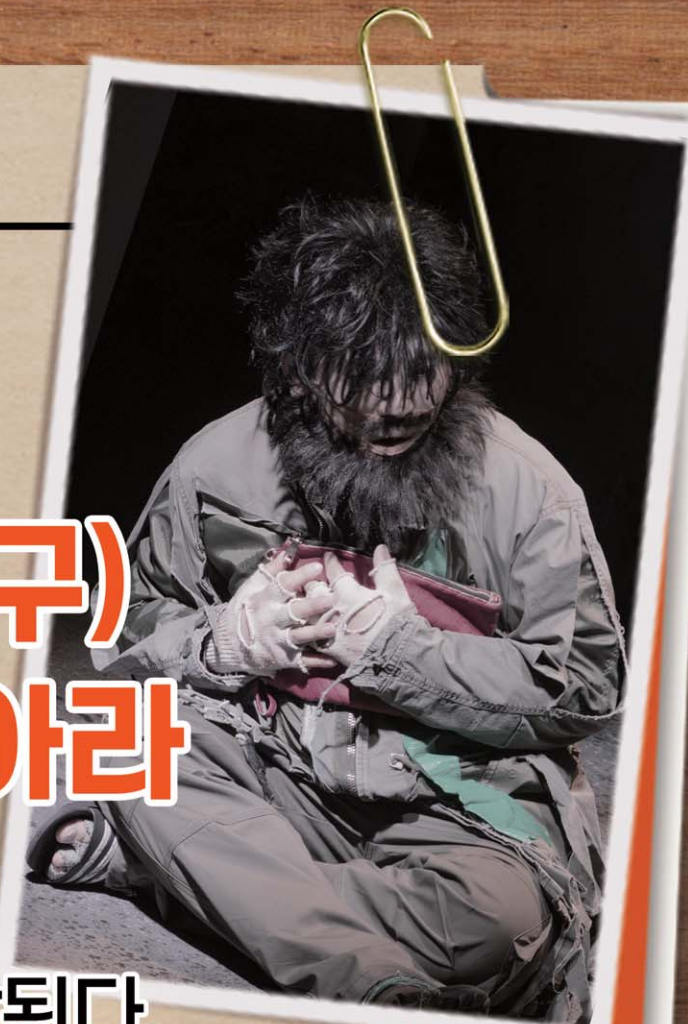
2인 제주 왕복 항공+숙박권
백화점 상품권 20만원
배달의민족 4만원 쿠폰

미션 기간 | 9월 말까지

* 본 이벤트는 참여형 이벤트입니다. * 상품은 최종 미션 완료자에 한해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 제세공과금이 발생하는 경품(5만 원 초과)의 경우 관련 세금은 당첨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문의 전화 | 02-332-4902





hy 중앙연구소,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선정

hy 중앙연구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6년도 상반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평가에서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됐다.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혁신 역량과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한 기업 연구소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27개 연구소가 선정됐으며 지정 기간은 3년이다. /hy



신한은행, 서울시립대 금융서비스 지원

신한은행이 서울시립대학교와 금융서비스 지원을 포함한 상호협력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서울시립대와 상호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안정적인 운영과 구성원의 금융 편의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우리금융미래재단, 다문화 자녀 특별장학금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금을 전달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이달 초 충남YMCA에서 '우리누리 웰컴데이'를 개최하고 재외동포 및 다문화가정 자녀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

HMM

50주년 스토리북 'LOGBOOK'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HMM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제작한 사사(社史) 스토리북 'HMM LOGBOOK'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본상(Winner)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상 가운데 하나로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등 3개 부문에 매년 2만개 안팎의 작품이 출품된다. HMM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통사와 스토리북으로 구성된 50년사를 제작했다. 이 가운데 에세이 형식의 스토리북인 'HMM LOGBOOK'이 독창적인 디자인과 기획력을 인정받아 본상을 받았다. /양성운 기자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단 승진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 이대균

부음 ▲우복순 별세, 김중곤 부인상, 김중문 문화일보 기획관리국장 모친상, 임희자 시모상, 김경수·김해경·김유경·김상미·김유미 조모상=22일 오전 8시30분 고양시 일산백병원, 발인 24일 오전 6시. 031-910-7444
▲강현숙 씨(전 KBL 심판위원장) 별세 = 22일,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11호, 발인 24일 오전 5시. (02)2258-5940

삼성전자서비스, 올해 주요 품질평가 '썩쓸이'

가전 16년·모바일IT 15년 연속 1위
예약 전국 확대해 이용 편의 높여
플러스점검으로 맞춤 관리 확대

삼성전자서비스가 올해 국내 주요 서비스 품질 평가를 모두 석권하며 서비스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장기간 이어온 서비스 품질 우위를 바탕으로 예약과 맞춤형 점검 등 고객 편의를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2일 삼성전자서비스에 따르면 회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6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조사에서 가전 애프터서비스(AS)와 모바일·IT기기 AS 부문 1위에 선정됐다.

가전 AS 부문에서는 16년 연속, 모바일·IT기기 AS 부문에서는 15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두 부문 모두 조사가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이 KSQI 1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삼성전자서비스

시작된 이후 한 차례도 정상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KSQI는 전문 평가단이 고객 입장에서 조사 대상 기업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한 뒤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제도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올해 조사에서 서비스 전문성과 고객 응대, 고객 맞춤형 서비스 등 주요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삼성전자서비스는 올

해 발표된 주요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서비스센터 부문 1위를 시작으로 6월 '국가서비스대상' 가전 AS 대상, 이달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와 '국가고객만족도(NCSI)' 전 부문 1위에 이어 KSQI까지 석권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서비스 품질 경쟁

력을 높이기 위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제품을 점검받을 수 있는 예약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 예약 서비스 제공 거점을 전국 모든 서비스센터로 넓혔으며 6월부터는 예약 가능 요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예약 서비스 이용 고객은 올해 3월과 비교해 6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가전제품 출장 서비스에서는 접수된 제품뿐 아니라 고객이 사용하는 다른 삼성전자 제품까지 함께 점검하는 '플러스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차례 방문으로 여러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 추가 고장 가능성을 줄이고 고객의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기아, 39번째 '그랜드 마스터' 탄생

황경하 선임 누적 판매 4000대
38년간 연평균 101대 실적

기아는 경기 안양지점 황경하 선임 오토컨설턴트가 누적 판매 4000대를 달성해 '그랜드 마스터'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그랜드 마스터는 기아 오토컨설턴트 가운데 누적 판매 4000대를 달성한 직원에게 부여되는 최고 수준의 영예다. 기아에서는 역대 39번째 그랜드 마스터다.

황 선임 오토컨설턴트는 1987년 입사 이후 38년간 연평균 101대를 판매하며 지난 6월 16일 누적 판매 4000대를 기록했다.

황경하 선임 오토컨설턴트는 "고객의 이동과 삶의 가치를 함께 설계한다



기아 황경하 선임 오토컨설턴트. /양성운 기자 ysw@

는 마음으로 임해왔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아는 영업 현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오토컨설턴트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강한 판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판매 명예 포상, 기아 스타 어워드 등 다양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롯데칠성, 구내식당서 '오토몬드' 캠페인

삼성웰스토리 6곳서 팝업 운영

롯데칠성음료가 식물성음료 '오토몬드'의 구내식당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삼성웰스토리와 협업해 8월 중순까지 주요 산업군 대표 기업 구내식당 6곳에서 순차적으로 오토몬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롯데칠성음료는 간편하게 영양을 보

충할 수 있는 식사 대용 음료인 '오토몬드'를 알리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팝업스토어는 '바쁜 일상 속 오토몬드로 영양 저장'이라는 콘셉트로 꾸며졌다. 롯데칠성음료는 식물성음료 오토몬드와 단백질음료 오토몬드 프로틴 시음행사 및 스낵래치 쿠폰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오토몬드 런치백 세트, 리유저블백 등 다양한 굿즈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중기중앙회, 전북 청년 중소기업 지원

인식개선 교육·취업설명회 첫 결합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북지역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위해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22일 전북 전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중소기업 바로알기: 청년 공감 잡(JOB) 페스타 in 전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을 취업설명회와 결합해 추진

하는 첫 사례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취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지역 대학생 및 고등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취업 전문 유튜브 '변접왕 이형'으로 잘 알려진 열라이브커뮤니티 이준희 대표의 특강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중소기업 가치를 재조명하고 취업전략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김승호 기자

한국GM, 자동차 AS 8년 연속 1위

KSQI 93점 응대 태도 등 최고점

한국GM이 직영서비스센터 매각 이후 협력 서비스센터 중심 체제 전환에도 우수한 정비 서비스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GM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발표한 '2026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KSQI)' 고객 접점 조사에서 자동차 애프터서비스(AS) 부문 8년 연속 1위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KSQI는 고객과 직접 대면해 서비스

를 진행하며 고객이 지각하는 서비스 품질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올해는 총 32개 산업군에서 132개 기업·기관을 조사했다. 한국GM은 자동차 AS 부문에서 종합점수 93점을 획득해 업계 1위로 평가받았다. ▲복합·용모·이름·응대 태도 ▲적극성 ▲말투·어감·호칭 등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렉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 중심 가치를 실천하며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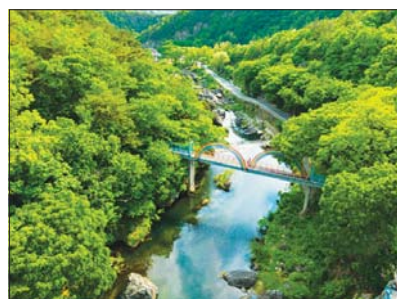
한여름 더위 식힐 지질 명소 6곳 공개

국립공원공단, 화암동굴 등 추천

올여름 무더위를 피해 시원하게 피서를 즐기며 지구의 역사까지 배울 수 있는 이색 지질 명소 6곳이 공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교육적 가치가 높은 '여름철 맞춤형 지질공원' 6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추천된 명소는 ▲강원 정선 화암동굴 ▲경북 의성 빙계계곡 ▲전북 진안·무주 운일 암반일암 ▲경북동해안 경주 양남 주상절리 ▲인천 백령·대청 콩돌해안 ▲제주 만장굴이다.

고성대 석회암 지층과 금광 갱도가



의성 국가지질공원의 빙계계곡. /국립공원공단

공존하는 정선 '화암동굴'과 연중 11~21℃의 시원한 기온을 유지하는 세계적 용암동굴인 제주 '만장굴'은 천연 그늘 속에서 신비로운 동굴 지형을 관찰하기 제격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LX하우시스, 열차단 필름 '에너지 절약상'

근적외선 반사해 온도 상승 억제

LX하우시스의 열차단 광고용 필름(사진)이 제 29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서 '에너지 절약상'을 수상했다.

22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은 1997년 시작 이후 매년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기술과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LX하우시스 '열차단 광고용 필름'

은 건물외벽·지붕·유리창 등에 부착돼 태양광을 차단하는 백색의 외장 마감재로, 우수한 열차단 성능을 갖고 있다. 우수한 시공 편의성도 강점이다. 열차단 광고용 필름은 뒷면에 미세한 공기 통로를 만들어 기포 발생을 줄이는 '에어 채널(Air Channel)' 기술이 적용된 점착제가 있어 건물 외벽이나 유리 창뿐만 아니라 차량, 컨테이너 등 까다로운 면에도 들뜸 없이 깔끔하게 필름을 부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책 많이 읽어도 국어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



지 상 범 의

임시 토크

“어릴 때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왜 중·고등학교 국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요?” 초·중등 자녀를 둔 많은 학부모가 털어놓는 대표적인 고민이다. 수능 국어는 대학에서 전공 서적을 읽고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고교 진학 후 문제집만 무작정 푸는 주입식 공부에서 벗어나, 학생의 인지 발달 단계에 맞추어 생각의 근육을 정교하게 키우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동해야 한다.

성적을 망치는 첫 번째 함정은 “국어는 우리말이니 쉽다”라는 안일한 착각이다. 이로 인해 초·중등 시절 국어 공부를 방치하다가 고등학교에 이르러서야 문해력의 한계를 마주한다. 두 번째 함정은 “학교 시험범위의 지문만 외우는 암기 공부”이다. 내신 국어는 범위가 한정되어 지문을 기계적으로 외워 푸는 임시방편이 통하지만, 수능은 낯선 외부 지문으로 독해력을 평가하므로 평소 스스로 분석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세 번째 함정은 “문학에 편중된 독서 습관”이다. 초등 고학년부터는 비문학 영역의 글감을 조화롭게

읽어야 한다.

평가원의 수능 안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능 국어의 평가 가제는 다섯 가지 행동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어휘·개념’은 단어의 문맥 속 정확한 뜻을 파악하고 학술적 기본 범주를 이해하는 독해의 기초이다. 둘째, ‘사실적 이해’는 명시된 정보 간의 연결과 비례 관계를 왜곡 없이 판별하는 사실 검증 능력이다. 셋째, ‘추론적 이해’는 직접 서술되지 않은 숨겨진 소전제와 생략된 인과 고리를 미루어 짐작하는 사고력이다. 넷째, ‘비판적 이해’는 글의 타당성과 편향성을 날카롭게 따져 검증하는 역량이다. 다섯째, ‘적용·창의’는 본문의 원리를 미지의 상황에 투사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내는 종합적 지능이다. 이 영역들은 초·중등 단계의 정교한 훈련을 거쳐 발달한다.

초등학생 시기는 파악제의 인지 발달 단계상 ‘구체적 조작기’에 속하므로 어휘와 사실적 이해를 다지는 공부가 효율적이다. 먼저 ‘한자 형태소 분해 놀이’를 권장한다. 수능 독서 지문 속 단어의 대부분은 한자어로 구성된다. 이를 단순 암기하기보다 형태소 단위로 쪼개어 개념을 추론하게 돕는다. 예컨대 ‘전도(顛倒)되다’에서 ‘엎드러질 전(顛)’과 ‘넘어질 도(倒)’를 떼어내어 ‘머리가 거꾸로 뒤집히는 모양’을 연상케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1단락 1문장 요약 훈련’을 보강한다. 설명문을 읽고 문단마다 핵심 명사와 서술어를 조립해 ‘카멜레온이 체온 조절과 천적 회피를 위해 몸 색깔을 바꾼다’처럼 완성된 한 문장을 만드는 훈련은 문장을 교묘하게 뒤트는 수능 선택지의 함정을 차단하는 힘이 된다.

중학생이 되면 추상적인 가설과 기호를 다룰 수 있는 ‘형식적 조작기’의 입구에 들어서므로 추론과 비판적 사고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 첫째, 글의 갈래별 흐름을 예측하는 ‘구조 독해’를 훈련한다. 과학 지문은 ‘장치 구성 요소와 작동 순서 관계’, 경제 지문은 ‘제도의 작동 조건과 변수’라는 거시적 전개 패턴을 예측하며 읽는 방식이다. 둘째, 정보 간의 비례 관계를 정리하는 ‘정보 매핑’을 생활화한다. 줄글로 엮힌 문맥을 ‘이자율 하락 → 통화 공급량 확대 → 화폐 가치 하락 → 물가 상승’과 같이 노트 여백에 화살표로 정리하는 공부이다. 이 훈련은 수능의 함정인 ‘인과관계 왜곡’을 시각적으로 격파하도록 돕는 강력한 추론 도구가 된다.

수능 최고난도 문항은 비판적 이해와 적용·창의 영역에서 출제된다. 이를 단련하기 위해 가정에서는 상반된 시각을 다룬 두 편의 대립 칼럼을 나란히 읽고 상대방 주장의 맹점을 찾아 반박을 적는 ‘크로스 독서법’을 연습해야 한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핵심수합 구상 공식화… 배보다 먼저 준비할 것들



기지 수첩

유 혜 온
(산업부)

정부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SSN) 개발 사업인 ‘장보고 N’ 구상을 공식화했다. 오는 2030년대 중반 진수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조선 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개발·건조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부터 진짜 필요한 것은 따로 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업과 민간 원전 기술을 보유해 개발을 뒷받침할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기술의 유무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국제적 허용과 운용 인력이라는 벽이다.

첫 번째 넘을 산은 외교·법적 문턱이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에서 이전된 핵물질과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다. 핵

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더라도 군사 목적으로 운용되는 만큼 미국산 핵연료와 관련 기술의 이전, 핵연료 조달·관리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도 미국 조선소 활용을 언급한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안보 수요뿐 아니라 미국의 조선업 재건과 일자리 확대, 핵추진 기술 관리라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더 시급한 건 사람 문제다. 핵연료, 플랫폼, 원자로를 모두 확보하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운용할 전문 인력이 없다면 전력화는 불가능하다. 승조원과 원자로 운전원, 방사선 안전요원, 정비 인력 등 다층적인 전문 인력과 장기간의 교육체계가 필요하다.

해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미국의 해군 원자로 안전·운용 체계와 프랑스의 저능축우라늄(LEU) 기반 잠수함 운용 사례는 충분히 참

고할 만하다.

문제는 미국 역시 여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은 호주 오크스(AUKUS) 지원과 자국 핵잠수함 건조·정비 수요를 동시에 감당하면서 인력과 생산 능력 부족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인력에 대규모 교육 기회를 제공할지는 불확실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시해야 할 반대급부는 조선업 경쟁력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정비 역량을 활용한 비핵 분야 협력과 미국·호주와의 교육·인력 교류를 연계하는 ‘한·미·호 협력 모델’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장보고 N 사업은 핵연료의 도입부터 운용, 정비, 최종 해체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의 완전한 핵추진잠수함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결국 전력을 완성하는 것은 이를 운용할 사람과 제도이며 지금부터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도 바로 그것이다.

/dhalehdhale@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3일 (음 6월 10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화술이 뛰어나니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60년생** 조바심이 날 수 있습니다. **72년생**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나는가 중요합니다. **84년생** 먼 여행보다는 가까운 여행이 좋습니다.



49년생 한가지에 꾸준히 매진하세요. **61년생** 두 가지 소원은 전부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73년생** 도모하고 있는 일은 빨리 시행하세요. **85년생** 좋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50년생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힘듭니다. **62년생** 연인과 다투거나 이별수가 있겠습니다. **74년생**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됩니다. **86년생** 어려운 시험에 당당히 합격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51년생 기대도 안했던 재물이 들어오게 될것입니다. **63년생** 먼 여행보다는 가까운 여행이 좋습니다. **75년생** 해외 여행이 꿈인데 몸이 따라 주지 않습니다. **87년생** 생활에 고통 받습니다.



52년생 오랜 친구가 나를 떠납니다. **64년생** 가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76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세요. **88년생**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53년생 어려움에 슬기롭게 도전합니다. **65년생**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77년생**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하세요. **89년생**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곧 호전됩니다.



54년생 스트레스는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입니다. **66년생** 좀 더 정성껏 치성을 드림이 좋겠습니다. **78년생** 남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90년생** 금전상으로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55년생 가세는 확장되고 만복이 찾아옵니다. **67년생** 가끔씩은 남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보세요. **79년생** 시기가 좋으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91년생**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56년생 동남방이 길방입니다. **68년생** 재물은 크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80년생** 오랜 친구가 배신합니다. **92년생** 기다리다 시간 놓친 격이니 너무 많은 조심성은 해가 됩니다.



57년생 건강은 건강할때 관리해야 할것입니다. **69년생** 무난하고 평온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81년생** 동쪽에서 귀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93년생** 기회란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58년생 미루고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즉시 추진하세요. **70년생** 기대도 안했던 재물이 들어오게 될것입니다. **82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94년생** 어려운 시험에 합격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59년생 크게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71년생** 양다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83년생** 늦바람을 특히 조심하세요. **95년생** 이성 문제로 깊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김상회의四季

행복한 신행 생활



필자는 어릴 적 잠시 크리스마스 때 동네 친구들과 함께 의례 성탄절야 행사를 보러 갔던 기억이 있다. 예수님이 말구유가 있는 마구간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동방박사들의 예방을 받는 모습들을 연극으로 재연하던 장면도 떠오른다. 어린 마음에도 느꼈던 것이지만 뭔가 따뜻하고 경건한 마음이 솟아오름도 느꼈다. 그 이후 종종 보게 되는 성경 구절 중 주옥같은 내용도 많이 있지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구절도 생각이 나곤 한다. 시편의 한 구절로 기억하는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청명한 하늘에 흰 구름 떠가는 평화로운 풀밭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 먹으며 안전하게 지켜주는, 무조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선한 목자가 그림처럼 그려진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러한 것처럼 불자인 필자는 역시 어두운 밤 등불에 의지하여 배가 항구를 찾듯 불보살님의 가피에 의지하고 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모든 종교에 통용되는 신앙 진리다. 다만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에서는 초하루나 보름 또는 특별한 간지일에 밤샘 기도를 통한 신행가피를 이루어나가기도 하지만 다도와 명상도 함께 하는 신행을 함께 하고 있다. 마음의 등불을 찾듯 행복한 신행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다. 지금은 서오릉 근처에 마련했던 월광사 본당이 주변의 택지개발 등으로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 조금은 좁아도 충정으로 터에서 소소하게 기도와 명상시간을 갖고 있다. 기도하는 마음은 기본이지만 탐욕과 성냄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어리석은 욕심일 뿐이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과 화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더불어 사는 공생의 존재들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야말로 기도이자 행복한 신행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1				3	8	6
7				5			
	8					4	5
			6			7	
			8	4			
	5		9				
5	9					1	
			4				8
8	6	3			5	2	

	8	7	4	2			
			9			1	3
							4
7				6		2	
1							3
	3		7				1
6							
2	5	4		7			
			3		9	5	4

정근식, 체험형 공립 대안학교 ‘세상중학교’ 신설 추진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비전 선포 기자회견
모두 위한 기본교육, 행복 협력교육

유아교육비 무상화 단계적 추진
학습진단성장센터 25개 자치구로
고위험 학생 지원 ‘마음회복학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체험 중심의 공립 대안학교 성격을 지닌 가칭 ‘세상중학교’를 신설한다. 만 3~5세 유아교육비 무상화와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위한 ‘마음회복학교’ 설립도 추진하고, 기초학력 지원 기관인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 2기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본교육’을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우선 만 3~5세 유아교육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 2기 비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속하는 동시에 유아 단계까지 무상교육 범위를 넓혀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초학력 지원 기관인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도 ‘1자치구 1센터’ 체제로 확대한다. 25개 자치구에 센터를 설치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습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

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을 모든 학생에게 보장해야 할 기본권으로 내세웠다.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마음회복학교도 신설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을 강화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해 교권 보호에 나선다.

체험 중심의 공립 대안학교 성격을 갖춘 가칭 세상중학교를 설립하고 특성화고 교육도 활성화한다. 다문화·이주배경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학생 대중교통비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추진한다. 유아교육비 무상화와 고교 무상교육, 학생 생활비 지원을 연계해 교육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헌법교육을 체계화하고 역사·세계시민 교육도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인팍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학부모와의 소통을 넓힐 계획이다.

미래형 전인교육 분야에서는 AI 윤리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강화한다. 독서·토론·인문학 교육과 협력종합예술활동을 확대하고, ‘1학생 1예술·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정책을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 ▲모두의 배

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등 5대 방향으로 구분했다.

교육지표로는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를 내걸었다. 기본교육은 ‘만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안전망 구축 ▲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민주주의 교육 ▲학부모·시민이 교육에 포함한 학교 기반 평생교육 확대 등 네 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

정 교육감은 “서울은 가장 많은 교육자원을 가진 도시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교육격차를 지닌 도시”라며 “서울교육은 오늘부터 기본교육이라는 담론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이를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단 한 명도 배움과 성장,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그 기본 위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구로동 466 일대, 대규모 주거단지로

서울시,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
최고 40층, 1500가구 규모로
교통체계 정비, 사회복지시설 배치

서울 구로구 구로차량기지 동측 구로동 466 일대가 최고 40층, 약 15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구로동 466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1970년대 구로공단 배후주거지로 조성된 저층주택 밀집지역이다. 고려대 구로병원과 구로구청 등이 가깝지만 서측 구로차량기지로 인해 동서 생활권이 단절돼 있고, 노후 주택과 급경사 도로가 많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을 제3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최대 2단계 상향한다. 사업성 보정계수도 최대치인 2.0을 적용해 약 1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철도변에는 최고 40층, 해발 135m 안팎의 건물을 배치한다. 동측 저층주거지와 가까워질수록 건물 높이를 낮춰 단계적인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 가마산로에서 이어지는 약 30m 폭의 통경축도 확보한다.

교통체계도 정비한다. 철도변 뿔꼬로 상·하행 도로의 높이 차이를 해소하고, 북측 회전교차로는 신호교차로로 바꾼다. 남측 구로동 400 일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와 연계해 도로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동측 저층주거지와 단절된 도로도 연결한다.

차량 진출입구는 교통량이 많은 구로동로를 피해 주변 도로 3곳에 분산 배치

한다.

북측 구로역과 구로초등학교를 오가는 진입부에는 공원을 조성한다. 남측에는 공원과 노인 돌봄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배치한다.

급경사 지형에는 데크형 대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 높이 차이는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로 연결한다. 동측 저층주거지 방향에는 경사형 보행로를 설치한다. 데크 하부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대상지 선정 이후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며 “다음 달부터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추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군사규제 해소

대화·법곡·장항동 일대 77만㎡ 해제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에 포함된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고양시는 국방부가 21일 고양시 법곡동·대화동·장항동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77만701.5㎡ 해제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해제 면적 가운데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은 44만6716.5㎡다.

시는 그동안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제약 요인으로 꼽혀온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토지 분양과 기업 유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일산서구 대화동·법곡동 일원 87만1761㎡ 규모로 조성 중인 고양시 첨단산업 거점이다. 사업구역의 절반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돼 고도 16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군 협의가 필요했다.

시는 이 같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와 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에서 군사시설 이전 협의를 이끌어냈다. 2020년 6월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이전사업을 추진했다.

이전사업은 시가 군사시설을 신축해 기부채납하고 기존 시설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2023년 10월 착공해 2025년 4월 준공됐다.

고양시는 군사시설 이전 이후에도 보호구역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완전 해제를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로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을 포함한 555개 필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고양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토지 분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경기도, 휴가철 맞아 ‘서해누리호’ 증편

‘풍도·육도’ 당일 섬 여행 가능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산시 대부도와 풍도·육도를 오가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 ‘서해누리호’ 운항 횟수를 확대한다.

도는 오는 24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서해누리호를 하루 2회 운항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해누리호는 하루 한 차례만 운항해 섬 방문객들이 최소 1박 이상 체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증편으로 관광객들은 오전 배를 이용해 섬에 들어

간 뒤 오후 배로 돌아오는 당일 여행이 가능해진다.

운항 횟수 확대는 관광객뿐 아니라 섬 주민들의 생활 편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병원 진료나 생필품 구매 등을 위해 육지를 방문할 경우 당일 귀가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오전·오후 시간대를 선택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 기간 가족·친지 방문 등 주민 이동도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서해누리호 증회 운항을 위해 운영선사인 대부해운에 운영경비 1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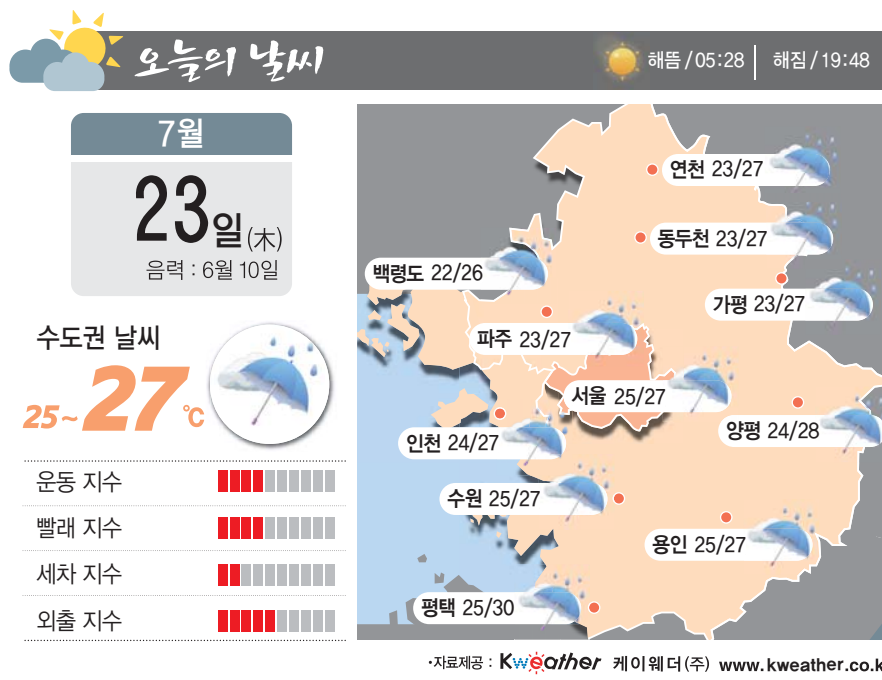
육도

/경기도

을 지원했으며, 수도권 시민들의 접근성이 낮았던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수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증회 운항을 통해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수도권 시민들도 부담 없이 가까운 섬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사우디 민간 원자력 협정 승인…우라늄 농축 허용” /사진 뉴시스

▲日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 9조원…반도체 수출 등에 적자폭 절반 ↓

▲“월드컵에 빠진 중국”…조회수 700억 회·축구 복권 16조원 팔려

▲프랑스,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EU 최초 법안 통과

▲칠레 폭우로 최소 10명 숨져…4명 실종·10만명 고립

▲한국 여권 세계 공동 2위…미국은 20년 새 선두에서 10위로



대형마트
중복 맞아 할인전
‘홈보양죽’ 공략
L1

암세포 정밀타격
방사선의약품
새 무기
L2



전통 우려내 웰빙 담았다 20년 갈증 채운 ‘국민차’

마시는 순간 입안 가득 감도는 구수함과 깔끔한 목넘김. 광동제약의 ‘광동 V라인 옥수수수염차’는 전통 한방 지혜에 현대적인 웰빙 감성을 접목해 대한민국 차(茶) 음료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

지난 2006년 첫 출범을 알린 광동 옥수수수염차는 20년간 쉬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갈증을 해소해 왔다. 2026년 기준 누적 판매량은 무려 16억 1258만 병. 20년 동안 매일 평균 22만 병이 팔리면서 국민 1인당 약 31병씩 소비한 수준의 대기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닐슨아이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식품 소매점 및 전체 오프라인 기준, 국내 즉석 음료(RTD) 시장에서 광동 옥수수수염차는 차 부문 1위를 유지하며 대한민국 일상에서 물처럼 마시는 음료로 자리매김했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광동제약 ‘광동 V라인 옥수수수염차’

광동제약 옥수수수염차는 예로부터 ‘옥미수(玉米水)’라 불리며 선조들이 즐겨 달여 마시던 전통 한방 원료인 옥수수수염에 주목한 광동제약 연구개발의 성과다. 광동제약은 옥수수차 특유의 구수한 풍미에 옥수수수염의 장점을 결합해 언제 어디서나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차음료를 개발한 것이다.

또 국내 식품 업계 최초로 ‘V라인’이라는 최신 뷰티 유행과 자기 관리법을 과격적으로 접목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시는 음료의 가치를 미용과 건강 영역으로 확장했다. 특히 매일 가볍게 마시면서 일상을 가꿀 수 있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안해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소비자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결과는 폭발적이었다. 2006년 7월 출시 직후 누적 판매량은 불과 몇 달 만에 400만 병에 달했다. 2007년 1월 말에는 출시 6개월 만에 1000만 병 고지를 밟았다. 이어 출시 1년 만에 5000만 병, 출시 2년 만에 2억 5000만 병, 출시 3년 만에 5억 병 등의 누적 판매고를 빠른 속도로 올렸다.

가파른 성장 배경에는 끊이지 않는 연구개발과 기술 혁신이 있었다. 2011년에는 메이신 함유 옥수수수염차 개발, 2013년 옥수수수염 피부미백 조성물 특허권 인수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했다. 마침내 2017년에는 누적 판매 10억 병에 도달했다. 국내 시장을 석권한 광동 옥수수수염차의 발걸음은 세계로 향했다. 대만과 중국, 미국, 일본 등 19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광동제약은 그동안 하지원, 보아, 김태희, 현빈, 신민아, 김수현, 전지현, 선미, K팝 걸그룹 아이브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을 브랜드 모델로 발탁해 ‘V라인 옥수수수염차’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적 아이콘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다.

광동 옥수수수염차 출시 20주년을 맞이한 2026년, 광동제약은 브랜드 다각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우선 ‘가벼운 하루를 만드는 V-루틴’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포장 디자인을 개편했다. 시각적 주목도를 높인 역동적인 ‘V라인’ 로고와 함께 옥수수 원물의 생동감을 감각적으로 녹여냈다. 용기 하단에는 옥수수수염의 형태와 질감을 입체적으로 살린 3D 패턴을 넣었고 손에 쥐는 사용감까지 개선했다. 500mL 페트병 기준 용기 중량을 기존보다 약 6.8% 줄여 친환경 플라스틱 절감 노력까지 더했다.

세분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제품군 확장도 돋보인다.

가벼운 바디감과 부드러운 목넘김을 선호하는 2040 여성 소비자를 겨냥해 선보인 ‘광동 옥수수수염차 라이트’, 3년 이상 화학비료를 쓰지 않은 토양에서 자란 원료로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식품 인증을 받은 프리미엄 ‘광동 옥수수수염차 유기농’, 전남 해남산 초당 옥수수를 100% 사용해 특유의 달큰한 풍미와 청량감을 극대화한 ‘광동 초당옥수수차’에 이르



배우 김태희가 광동 옥수수수염차를 들고 브랜드를 상징하는 V라인을 알고 있다.



걸그룹 아이브가 광동 옥수수수염차를 소개하고 있다. /광동제약

韓 전통 차에 현대적 웰빙 감성 접목해 건강 음료로 20년간 16억병 판매 신화

선조들이 즐겨 마시던 옥수수수염 개발 V라인 콘셉트로 미용·건강 영역 확장
국내 석권 후 글로벌 진출… 19개국 수출
당대 최고의 스타, 브랜드 모델로 발탁

20주년 맞아 ‘V-루틴’ 패키지 개편 라이트·초당옥수수 등 제품 다양화 무카페인 음료로 밤에도 ‘수분충전’

기까지 소비자 선택지를 크게 넓혔다.

아울러 광동제약은 광동 옥수수수염차의 가장 큰 강점으로 ‘무카페인’을 꼽는다. 카페인에 민감한 어린이나 임산부는 물론, 공복이나 잠들기 전 늦은 밤에도 물 대신 안심하고 수분을 보충할 수 있어 명실상부 지속 가능한 차(茶) 음료로 인정받았다는 포부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누적 16억 병이라는 기록은 20년 동안 큰 성원을 보내준 소비자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정직한 원료와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1위 브랜드로서 그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美 시청자 6000만명…2026 북중미 월드컵, 역대급 흥행” ESPN /사진 뉴시스
▲KIA 성영탁 “형 금전문제 죄송…현재는 관계 끊은 상태”

▲“한국 드라마 같은 전개”…日 언론, 홍명보호 월드컵 탈락 집중 조명
▲한여름 밤의 갈라 ‘2026 발레스타즈’…이상은·채지영 등 발레스타 총출동

▲“전쟁 속 문화유산도 무기 된다”…국가유산청·유네스코한위 ‘유산의 정치화’ 조명
▲조성진, ‘황금빛 음식’ 빈 필과 2년만에 韓서 협연

AI·BIO 융합기술로 건강한 미래의 답을 찾다

LG는 AI와 BIO기술의 융합을 통해 암, 알츠하이머 등 다양한 질병의
정밀진단과 신약개발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여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미래, 같이

AI로 세상을 미소 짓게 하는
미래가치를 만듭니다

